



제3014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기रो에 선 '삼성생명법' 4

3년 만의 게임축제... 지스타 개막 12

코스피(11월)	2442.90 (-34.55P)	코스닥	737.54 (-5.58P)
환율(달러당 원화)	1339.10 (+14.1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804% (-0.004%p)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尹 만만 빈 살만 “네옴시티·에너지 사업 참여해달라”

尹대통령-빈 살만 회동

빈 살만 왕세자 3년 만에 방한 네옴시티에 韓 기업 참여 요청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만나尹 “수교 60년, 경제협력 동반자” 양국 전략파트너십위원회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확대회담과 단독회담, 공식 오찬을 가졌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 관저 입주 후 첫 손님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공항에 나가 빈 살만 왕세자를 영접했다.

▶관련기사 2·3면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비전 2030'에 따른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에너지 및 방산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네옴시티는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해 발표한 비전 2030의 핵심으로 대규모 신도시를 세우는 사업이다. 규모만 5000억 달러(약 670조 원)에 달한다.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에 우리 중소기업 포함 여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에너지 개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한 후 걸으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통령실

·탄소포집기술·소형원자로(SMR) 개발·원전 인력양성 협력, 방산은 사우디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협력을 요청했다.

양측은 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양 정상 간에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와 함께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전략파트너십 위

회는 양국 지도자 차원에서 협력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비전 2030 위원회는 기존 5개 분과에 에너지와 농수산 분과를 신설하고, 현행 역량 강화 분과와 제조·에너지 분과를 각기 교육·문화 분과와 산업 분과로 개편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무함마드 왕세자의 주도하에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의 최근 잇단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7차 핵실험 감행 시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단호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북한의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우디는 한국을 확고히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윤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대북지원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우리 기업 총수들과도 만나 네옴시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당정, 특금법시행령 개정 검토

FTX파산에 투자자 보호 업계 "가이드라인 환영"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제자산, 이용자 예치금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특금법시행령(특금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정부·여당의 입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권법 제정 이전에 시급한 사안인 예치금 완전 분리만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거래소 자산과 예치금 분리를 위해 특금법 일부개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민주당이 큰 작든 정부·여당 입법을 모두 막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금법 지침인 시행령을 바꿔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2면

앞서 14일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민정당 간담회가 열렸다. 투자자 보호 중심 법·제도를 우선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거래소 파산 시에도 예치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면서도 연내 입법은 장담하지 못했다. 국회 심의가 필

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는 배경이다.

특금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불법재산이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해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조항의 대통령령은 현재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과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면 해당 대통령령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업권법의 예치금 분리 관련 내용 일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은 예치금을 거래소 고유자산과 분리하고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기관과 신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탁받은 디지털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도 규정했다.

업계에선 입법든 시행령 개정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FTX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안유리 기자 inglass@

수능 국어 쉬웠고 수학 어려웠다

출제위원장 "예년 기조 유지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출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교사·입시 관계자들은 올해 수능에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웠고 수학은 작년만큼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학은 전년 수준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다"며 "1등급 커트라인도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변별력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어보다는 수학의 변별력 확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능 출제단은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박윤봉(사진) 충남대 교수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며 "국어·수학 선택과목의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그는 영역별로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출제했다. 수학 영역은 수학의 기본개념

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어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1791명 줄어든 50만8030명이 지원(원서 접수)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응시자 수(1교시 기준)는 45만477명으로, 결사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10.8%였다. 평가원은 21일까지 문제와 정답 이의신청을 받고 29일 정답을 최종 확정한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9일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된다.

손현경 기자 son89@

GS건설 종합대상...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호평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GS건설이 '2022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인 종합대상을 받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부영주택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혁신일자리 부문 대상)과 고용노동부장관상(산업안전 부문 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SK에코플랜트는 동반성장위원장상(동반성장 부문)을 받았다.

17일 오후 본지가 주최한 '2022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이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종합대상을 수상한 GS건설은 미래 경영 화두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건설사 가운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련기사 21·22·23면

혁신일자리 부문 대상을 받은 SH공사는 '희망돌보미 사업'을 시행해 일자리를

늘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안전 부문 대상을 받은 부영주택은 안전 경영을 도입해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동반성장 부문 대상을 받은 SK에코플랜트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비즈니스 파트너 지원과 공정거래 규율 준수 등을 이어나간 점을 고평가받았다.

정용욱 기자 dragon@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尹대통령·뤼터 총리 정상회담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보장” 반도체·AI·농업·원전협력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공식 방한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와 원전,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16년 포괄적·미세지향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6년 만의 격상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하고 정치·안보, 경제, 문화, 지역·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긴밀히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내 양국의 상호보완성과 의존성을 고려해,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전략적 관계 이행 체계 마련을 위해 장관급 전략대화체를 신설했으며 특히 반도체, 원전 등 경제안보 핵심 산업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

다. 이에 세계적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ASML)과 우리의 반도체 생산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간 협력을 포함해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

양 정상은 “경제안보와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을 포함한 핵심기술 및 신기술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조율과 협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의 원전산업 간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측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계획을 고

려해 양국 간 원전산업 분야 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중대 도발 시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국방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양해각서(MOU)를 추진하고 고위급·실무급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기반한 지역 내 협력 증진, 우크라이나 문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인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해서 네덜란드 정상 차원의 긍정적 고려도 얻어냈다.

양 정상은 회담에 앞서 반도체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총수들은 물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피터 베닝크 CEO도 동석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차담회를 위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로 들어 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 총수들이 수십조 원의 ‘짜깁’도 가능한 사우디아라비아 ‘네움(Neom) 시티’ 프로젝트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 직접 세 일즈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은 17일 오후 5시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재한 차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도 사우디아라비아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참석했다.

김동관 부회장이 오후 4시20분께 가장 먼저 롯데호텔 정문에 도착했다. 곧이어 박정원 회장,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빈 살만과 차담회...총수들이 직접 뛰었다

660조원 네움시티 물밑 수주전

이재현 회장, 정의선 회장이 속속 도착해 롯데호텔 로비로 향했다. 이들 총수는 대화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 6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재계 총수들은 1시간 가량 진행된 차담회에서 공식 사업비만 5000억 달러(약 660조 원)에 달하는 ‘네움시티’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빈 살만 왕세자와 친분을 쌓았다.

우리 기업들은 네움시티 프로젝트에 건설·에너지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ICT), 모빌리티, 친환경 기술 등 광범위한 사업 협력과 수주를 노리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네움시티인 만큼 글로벌 기업들과 입찰 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빈 살만 왕세자와의 관계 등을 앞세운 물밑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빈 살만 왕세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만큼 네움시티 사업 수주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9년 초 방한한 빈 살만 왕

세자를 삼성 영빈관인 승지원에 초청해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주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사우디 출장길에 빈 살만 왕세자와 다시 만나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날 회담을 위해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삼성은 이미 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움시티 ‘더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5G·6G, 사물인터넷(IoT) 기

술력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확대 등 친환경 사업을, 정의선 회장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에서 지닌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관 부회장은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빈 살만 왕세자가 예정과 달리 일정을 앞당겨 입국할 정도로 네움시티 프로젝트에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해 주길 원하는 것 같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에 걸쳐 총수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수 기자 citizen@·장효진 기자 js62@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1단계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p>농장진입로 폭 2m이상 생석회 충분히 도포</p> <p>출입구 고정식+고압분무기 2단계 소독</p>	<p>농장 내부(축사 밖) 매일 청소·소독</p> <p>부출입구·뒷문 폐쇄</p>	<p>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손소독(위생장갑 착용시 포함) 실시</p> <p>전실</p>	<p>축사 출입구, 내부 통로, 환기구 등 집중 소독 안개분무 소독시설은 매일 2회 소독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p>	<p>-1주일 간격 반복 도포</p> <p>-U자형 소독시설인 경우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비취와 하부 등 추가 소독</p>	<p>※ 소독약은 용법용량 권장 희석배수 준수</p> <p>※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p>	<p>-전실에 전용장화·손소독제 비치·전실 매일 소독</p> <p>-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p> <p>-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p>	<p>-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p> <p>-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p>

쏟아지는 ‘오일머니’... 국내 기업들, 40조 잭팟 터졌다

‘네움시티’ MOU 26건+α
‘한국-사우디 투자 포럼’ 개최
기업 6곳과 사우디 정부 협력
삼성물산 등 17개 기업간 MOU
S-Oil 국내 건설사 3곳과 계약

무함마드 빈살만(Mohammed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오일머니가 한국 기업에 풀렸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기업은 삼성물산, 현대로템 등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대규모 MOU가 체결되며 국내 기업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주최로 개최된 ‘한국-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투자 포럼에선 단일 외국인 투자로 최대 규모인 S-Oil(에스오일)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내 건설사와 EPC(En-

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간 네움시티 철도 협력, 국내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그린 수소 신에너지 협력 등 20개가 넘는 계약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각 협약의 예정된 사업비만 조(兆) 단위에 달하는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다. 알-팔레 장관은 이날 사우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과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국내 기업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간 협력 MOU는 총 6건으로, 현대로템에 더해 △롯데정밀화학과 화학 분야 협력 △DL케미칼과 합성유 공장 설립 △지엘라파와 제약 분야 협력 △시프트업과 게임 분야 협력 등이 담겼다. 향후 협의에 따라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기업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또는 기관 간 협력은 총 17건으로,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 등 5개사와 사우디국부펀드(PIF)가 체결한 그린 수소 개발 협력을 비롯해 △대우건설의 석유·가스·석유화학 프로젝트 협력 △유바이오로지



한국·사우디사업협력 프로젝트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 간 협력 총 6건		우리 기업과 사우디 기업 간 협력 총 17건	
명칭	서명 주체	명칭	서명 주체
네움 철도 협력	현대로템	모듈러 사업	삼성물산
화학 분야 협력	롯데정밀화학	그린수소 개발	삼성물산 등 5개사
합성유 공장 설립	DL케미칼	그린수소 암모니아	한국전력
제약 분야 협력	지엘라파	석유·가스·석유화학 프로젝트	대우건설
게임 분야 협력 MOU	시프트업	가스절연개폐장치 제조법인	효성중공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MOU	와이디엔에스	주조·단조 공장 건설	두산에너지리티
에스오일과 국내 건설사 간 계약 총 3건		열병합 프로젝트	한국전력
S-Oil 2단계 EPC 기본계약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스마트팜 합작법인	코오롱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비피도

스의 백신과 혈청 기술 이전 △한국전력의 열병합 프로젝트 협력 등이 담겼다.

S-OIL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 건설업체와 사인 프로젝트 EPC(설계,

조달, 시공) 업체 선정 계약 체결식을 하고 프로젝트건설을 본격화했다. 단일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인 만큼 국내 건설사들의 석유화학과 청정에너지 사업에 활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이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함께 쌓은 믿음을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동반자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on@



호텔서 나오는 빈 살만 일행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7일 새벽 방한했다. 전용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재계 주요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빈 살만 왕세자 일행들이 이동하기 위해 차에 올라타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기후변화 대비... 에너지 다각화 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필요”

韓-사우디, 비즈니스 회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들이 기후 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다각화, 우주·바이오·관광 등 신산업 투자 등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사우디 상공회의소가 17일 상의회관에서 ‘한-사우디 비즈니스 카운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동욱 한-사우디 경협위원장 대행(현대차 부사장)을 비롯해 파하드 알 알란 사우디 경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국 협력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사우디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 이어 양국 기업인들이 10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된 행사이다.

한국은 인프라·건설, 디지털, 바이오 분야 역량을 통해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 비전 2030’ 계획의 5대 중점 협력 국으로 선정됐다. 양측이 네움(NEOM) 시티, 홍해 프로젝트 등 국가적 인프라 건설 협력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코로나로 위축된 양국 투자환경에 큰 활력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네움시티는

길이 170km, 폭 200m 유리 벽으로 이뤄진 서울시의 약 44배 규모의 친환경 주거, 산업도시다.

발표자로 나선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은 그린 및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이슈 부각에 따라 한-사우디 간 경협도 기존의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기후변화, 디지털, 바이오 등으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팀장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면서 한국과 사우디 역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수소 등과 같은 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각화를 위한 상호협력 이 더욱 긴밀히 진행돼야 한다”며, “엔터테인먼트, 우주항공, 바이오, 관광 및 레저와 같은 신산업 투자에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사우디 간 협력 관계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올해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으로 양국은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 왔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강점 분야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미래 세대에도 양국 호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우주, 관광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협력이 조속히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

대한민국 NO.1답게 새로움을 담다

김치의 또 다른 이름

김치 부문 브랜드 파워 1위
 한국농협협회권선징 선정
 (2001년~2022년)

與 ‘국회 빚장’·野 ‘동상이몽’... 기로에 선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재점화

‘삼성 저격수’로 통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삼성생명법’ 카드를 꺼내면서 정치권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야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삼성생명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한 민주당 정부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삼성생명법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

野, 법안소위 상정 뜻 모았지만 黨 내부서 ‘속도 조절론’ 이견

법사위·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 정기국회 법안 통과 쉽지 않을 듯

재계 “삼성 지배구조 겨냥 의도” 박용진 의원 “수백만 주주 혜택”

며 “여당에서도 상정 자체를 막을 명분은 없어서 소위에서 상정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르면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삼성생명법

이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안건 상정에 대해) 합의가 안 될 게 뭐가 있냐”며 “다음 주 화요일에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안건 상정 이후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삼성생명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데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뜻을 명확히 세웠기 때문에 실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민주당 정부위원은 “아직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 이견은 별로 없다”며 “금융위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오면 검토해보자는 정도”라고 반박했다. 한 국민의힘 정부위

원은 “우리 쪽은 반대하는 기류가 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소위에서 상정돼 의결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부위원은 “정부위에서 빨리 통과시키더라도 분명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 것”이라며 “굳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발의된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정 투자 대상에 자금이 쏠리는 걸 제한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법안에 삼성의 지배구조를 겨냥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이 삼성생명법과 삼성화재 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가치가 30조 원 수준으로 불어나고, 총자산의 3%인 9조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가 타격을 입으면서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高물가 덮치고 재난지원금 끊기고... 가계 빈부격차 더 커졌다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소득 3% 늘어난 487만원 물가 상승에 실질소득 2.8% 줄어 1분위 가구 소득 1년새 1% 감소

3분기 가계소득이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감소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체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지난해 정부에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었기 때문이다. 소비지출은 6.2%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에 쓴 돈이 늘었지만, 소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 상승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2.8% 감소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41만3000원으로 3.7% 증가한 반면,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1.0% 감소한 11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경우 공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큰데, 지난해 3분기에 국민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국민지원금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8.7% 상승한 138.1%로 나타났다.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로, 1년 새 0.41배포인트(p) 늘어 소득 격차가 다소 약화됐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70만2000원

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 음식·숙박(22.9%), 오락·문화(27.9%), 교통(8.6%), 의류·신발(15.3%) 등에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식품·비주류음료(-5.4%), 가정용품·가사서비스(-9.1%) 등에서는 지출이 줄었다.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 지출에 쓴 돈의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2.8%p 상승한 70.2%로 나타났다.

음식·숙박 지출은 외식 등 식사비(21.0%)와 호텔·콘도 등 숙박비(58.6%)가 큰 폭으로 늘면서 22.9% 증가했다. 오락·문화도 단체여행비(384.8%), 운동 및 오락서비스(53.0%) 등의 지출이 증가해 27.9% 늘었고, 의류·신발 지출도 신발(23.6%) 등의 영향으로 14.3% 증가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효과를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아시아나, M&A 무산 계약금 반환의무 없다” HDC현산에 1심 승소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아시아나 매각 무산’과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에 상대로 제기한 2500억 원대의 집권소멸통지 등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아시아나 측이 현산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집권소멸통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이다.

앞서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현산은 인수 환경이 변했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다.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현산의 아시아나항공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두 달 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해당 인수 전과 관련해 피고들이 인수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M&A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KDB산업은행 등에 설정한 집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들이 계약금에 대한 집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 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이 거래를 종결할 권한을 가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수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금 채무가 소멸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집권도 모두 소멸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처우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

세수 43兆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92兆

기재부 ‘재정동향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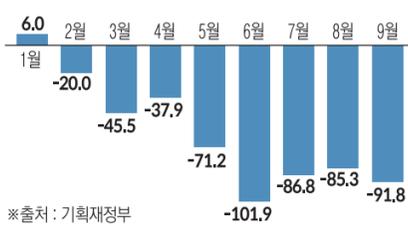
전년보다 적자폭 23.1兆 증가 9월말 기준 국가채무 1029兆

올해 1~9월 세수가 전년보다 43조1000억 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제수입은 317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1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는 11조9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0조6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50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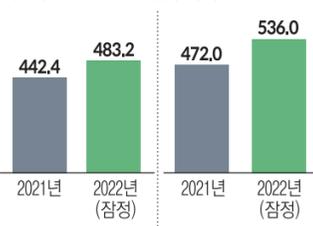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누계 기준 잠정치



※출처: 기획재정부

총수입 442.4 (2021년) 483.2 (2022년 잠정)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23조6000억 원)도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141조9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3조7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총수입은 483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000억 원 늘었다. 1~9월 총지출은 536조 원으로 전년보다 64조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5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0조6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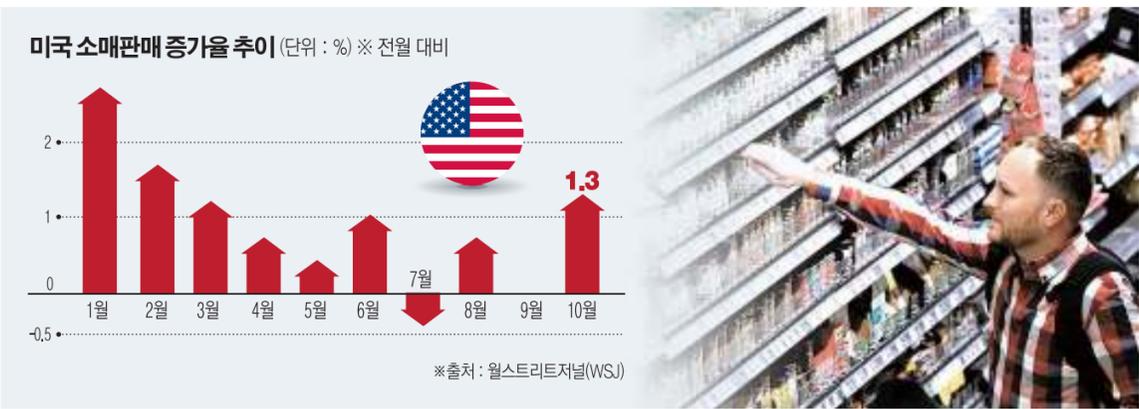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2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23조1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이 17조1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29조1000억 원으로 전월보다는 1조6000억 원 줄었다. 전년 말과 비교해 국고채 잔액이 87조7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4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9000억 원 각각 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액이 1030조 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연말엔 1037조7000억 원(2차 추경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서병권 기자 sbg1219@

美 소비 굳건... 연준 인사들 “금리 최소 1%p 더 올려야”

10월 소매판매 전월비 1.3% ↑
40년 만의 최고 물가상승률에도
가계, 아직 지출 늘릴 여력 있어
‘인플레이션 잡기’ 긴축에 힘 보탬 듯
골드만 최종금리 전망 5~5.25%



하지만, 하나의 지표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읽어서 안 된다”며 경계했다. 이어 “CPI 등 화가 얼마나 지속할지 알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경기침체를 피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연준에서 근무한 40년간 이런 긴축에 고통받지 않는 결과가 나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준이 내년 금리 인상 속도를 보다 전통적인 0.25%p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금리 인상을 조기에 종료할 위험이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골드만삭스는 미국 기준금리 전망치를 이전보다 0.25%p 상향한 5~5.25%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불쾌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FOMC에서 연준이 소폭의 금리 인상을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미국 소비자 수요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극복이 최대 과제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최소 1%포인트(p)는 더 올려야 한다며 긴축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1.0% 증가)를 웃돈 것으로,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식품, 자동차, 가구 등 13개 부문 중 9개 부문에서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케인 ‘이안’ 강타 이후 건축

자재와 가정용 가구에 대한 지출이 특히 증가했다.

소매판매 호조는 미국 물가상승률이 40여 년 만의 최고치 수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지만, 가계가 지출을 늘릴 여력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WSJ는 설명했다. 나아가 인플레이션 잡기에 부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도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준 위원들도 긴축을 이어갈 필요성을 피력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일시 중단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연준은 인상을 중단하기 전에 적어도 1%p, 가능하다면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금리 범위는 아마도 4.75%에서 5.25% 사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그 범위가 합당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리를 올리고 유지하는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에서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으면서 금리를 3.75~4%로 올렸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12월 금리 인상 폭을 0.5%p로 낮추는 데 열려 있다”면서도 “더 많은 지표를 확인할 때까지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공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 폭이 둔화한 것에 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달〉

“금통위, 베이비시텝 가능성 내년 경제성장률 1%대 후반”

증권사 채권연구원 15명 조사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 이뤄지는 한국은행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베이비시텝(기준금리 0.25% 인상)으로 금리 인상 보폭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1분기(1~2월)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터미널레이트(terminal rate, 최종금리)는 3.5%와 3.75%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년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1%대 후반을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역시 최근 국제유가 등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3%대 중반으로 소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금리 3.5% vs 3.75% 팽팽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 의견도 치솟던 원달러 환율 진정세 영향

경기 우려 지속적으로 제기돼 잠재성장률 하회 가능성 예측

17일 본지가 증권사 채권연구원 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베이비시텝(13명)이 빅시텝(기준금리 0.50%p 인상) (2명)을 압도했다.

5%가 넘는 소비자물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의 금리역전 폭 확대 등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여전하지만, 10월 빅시텝의 전제 조건이었던 원·달러 환율 급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데다 크레딧시장의 유동성 경색 등에 따른 금융안정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주요20개국(G20)에서도 통화정책 속도조절론을 내놓은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점, 이번에 G20에서 통화긴축 속도조절 내용이 언급된 점에 한은도 적극적으로 인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10월과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빅시텝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백운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빅시텝을 단행했던 10월 당시와 비교해 볼 경우 물가, 연준 통화정책과의 갭은 물론 환율상황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데 전원이 동의했다. 공동rak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까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고, 연준의 인상 행보 역시 해당 시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3.75%를 예상했다. 반면,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과의 금리 역전 폭은 더 벌어지겠지만, 금융시장 안정과 펀더멘털을 고려해 (인상기조를) 스톱할 것”이라며 3.5%를 전망했다.

금리결정과 함께 한은이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의 경우 내년 성장률은 1%대 후반(13명)이 2%대(2명)를 크게 앞섰다. 소비자물가(CPI)도 3%대 중반에서 최대 3%대 초반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8월에 각각 2.1%와 3.7%를 전망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경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는 1%대 후반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가와 환율이 한은 예상보다 안정된 만큼 물가도 3%대 초반 정도까지 내릴 것”이라고 봤다.

김남현 경제전문기자 kimnh21c@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슬기로운 영금생활

“지금은 연금투자자의 시대”

지금 당신의 결정이 100세 시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연금투자자는 NH투자증권

타사 이전 고객 / 신규 가입 고객 / 기존 고객 추가납 이벤트

구분	지금 기준 금액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연금 저축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1만 원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3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원 미만	10만 원
IRP	1억 원 이상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1만 원
	3천만 원 이상	3만 원

QV 슬기로운 영금생활

이벤트 확인하기

최대 24만 원의 추가 혜택이 기다리고!

운동사 이벤트 확인하기

[이벤트유의사항]
 ※ NAMU계좌, 법인계좌는 제외 ※ 모든 이벤트는 중복중첩이 가능 ※ 상품권 지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고유지 시 2023년 1월 중 지급 예정이며,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증정을 위한 마케팅(SMS 포함) 동의는 필수입니다. 미동의 시 상품권 지급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 쿠폰의 경우 사용 유효기간은 발송일로부터 60일이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수신 거부, 번호오류, 개인정보 변경에 따른 쿠폰 재발송, 환불요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5만원 초과 혜택 증정 시 발생하는 22% 제세금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단, 해당 소득은 고객님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각종규정 제16조 2항(특별이익제공한도)에 따라 IRP고객의 시용액은 최대 3만원으로 한정됨 ※ 지급기준금액·이벤트 기간 최종 순증금액(연금금액-출연금액)
 [투자유의사항]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한도 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며,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통예금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과세적립금] 평잔에 따라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하며(적립금 평잔 1.5억원 이하 운용관리수수료 연 0.15%, 적립금 평잔 5억원 이하 자산관리수수료 연 0.1%, 연 후취, 적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세한 수수료율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평잔: 연간 일지별 평균금액의 평균값) ※ NH투자증권 준법팀
 제2022-08호(2022.09.05~2023.09.04)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22-03461호(2022.10.17~2023.01.31)

“野, 국정과제 덮어놓고 반대”...尹, 대국민 호소 나서나

내달 국정과제 대국민보고 검토 정부 법안 77개 한개도 처리 안돼 輿 “야당이 발목” 여론 압박 기대 20개 핵심과제 공개 전환도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중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계획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통한 여론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의석에 막힌 입법 부진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7일 본지에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며,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추진 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기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의 국정과제 현황을 설명하고, 힘을 쏟고 있는 과제들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로 제시할 과제들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비공개로 짚았던 핵심과제들 중 진척을 보인 것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본지는 윤 대통령이 비공개로 110대 국정과제 중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할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

정·비공개 부치기로). 속도를 내야 하는 핵심과제 20개를 집중 추진하고, 예산이나 법안을 국회로 넘겼을 경우 완료된 것으로 여겨 제외하고 다른 과제를 새로 집어넣는 방식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핵심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과제들과 관련한 분야와 지역에서의 불만을 우려해 비공개로 남겨야 한다는 방침과, 총선을 1년여 앞둔 만큼 핵심과제를 공개함으로써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국민 보고에선 핵심과제를 명시하진 않더라도 힘을 쏟고 있는 과제들을 설명

하며 원활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호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모두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고, 국정과제 관련 의원입법까지 포함한 230건 중에선 민주당도 입장을 같이하는 비쟁점 법안 20건만 통과된 상태다. 민주당에 가로막혀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초반부터 야당에게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호소하면 민주당이 여론 압박을 받아 일부 협조할 수도 있다는 기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지금 정

부나 우리 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면 그 내용이 작든 크든 관계없이 덮어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상황을 토로한다면 민주당이 협조해야 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본지와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편성되던 용산공원 예산 300억 원 조차 막아서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들도 비슷한 분위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밀린 법안들도 정치적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커피 드시면서 하세요”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결위 제1차 2023년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오른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 “하청·특고 노동기본권 누려야” 경영계 “노사 개념 무한대 늘어나 혼란”

‘노란봉투법’ 국회 공청회 공방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제정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노조법 규율대상이 늘어나면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약속한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과의 충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 범위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노동계를 대변한 문성덕 변호사는 “간접

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워커(worker)이고 노동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내용”이라며 “ILO 기본협약이 국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현시점에 합당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노동자,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오늘날 다양한 노동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이정 교수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될 경우, 사용자의 개념도 ‘모든 노무제공자의 상대방’으로 확대되어 노조법상 규율대상

이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이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무한대로 확장되게 된다”며 “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사용자 개념 역시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용경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현재 대기업 원청의 경우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경우, (원청은) 다 하청업체 근로자들한테 교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걱정했다. 원청 회사 사용자와 하청회사 근로자 사이의 직접 단체교섭 여부는 당사자 자율로 정할 사항이지, 법률로 강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8일 만에 또... 북, 미사일 도발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에 반발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한 발을 발사했다. 대북 공조를 강화해 가는 한미·한미일에 반발하면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미사일 발사 장소, 속도 등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한 발을 포착했다.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민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9일 평안남도 속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한 발을 발사한 뒤 8일 만에 도발을 감행했다. 또 이번 발사는 최선희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한 지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뤄졌다. 최선희 외무상은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 외무상은 “며칠 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여놓고 저들의 침략

적인 전쟁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 한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자 회담 결과를 비난한 것이다. 당시 3국은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은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대북 공조를 강화해 가는 한미·한미일에 반발하는 동시에 남측의 긴장 완화 및 대화 노력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이던 지난 2~5일 사상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떨어진 한 발을 포함해 미사일 약 35발을 퍼부으며 훈련에 극렬히 반발한 바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장경태 ‘빈곤 포르노’ 후폭풍... 야권도 “사과해야”

이원욱 “청년정치는 달라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빈곤 포르노’라고 발언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16일 장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장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얼마 전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잃었고, 지금 ‘Poverty Porn(빈곤 포르노)’이라는 앞으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용어를 잃는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양두구육’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다”고 반발한 것에 빗대 ‘빈곤 포르노’도 본래의 뜻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빈곤 포르노는 모금 유도를 위해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의미한다. 그는 “빈곤 포르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제만큼이나 꼭 짚어내야 하는 전근대적 문화”라고 꼬집으며 “사회복지의

넓고 다양한 수위를 일부 방송국과 연계한 빈곤 포르노를 앞세운 단체들이 독점하는 점 때문이라도 언젠가 타파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에서 포르노에 찢힌 분들은 이 오래된 논쟁에 대해 한반도 고민 안 해본 사람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성을 찾자”고 했다. 야권에서도 장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경태 의원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사과할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경태 의원은 새로운 청년의 언어를 통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언어가 청년을 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의 청년정치는 달라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의사 표명이 있다면 유감 표명을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그러한 것은 조건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장경태 의원은 저도 잘 아는 청년 의원이 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만희 기자 nancho0907@

노웅래 “태양광 역시 마라...결백에 정치 생명 걸겠다”

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부인 “압수수색은 文 겨냥한 정치보복”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이자 기획수사, 공작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단도직입적으로 이

권을 청탁받고 뭘 받은 적이 없다”며 세 가지 근거를 냈다. 그는 “검찰이 지목한 사업가 박모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돈을 줬다는 박모 씨의 얼 굴조차 모른다”고 했다. 이어 “영장에 따르면 태양광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태양광과 상관없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라며 “태양광으로 영욕하는 건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노 의원은 이번 수사를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의 시도라고 규정하며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 탈원전으로 엮을 것이고 그 갈팡의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백에 제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2020년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 측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우유 가격 줄줄이 인상
우유 원유 가격 인상으로 17일 유제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날부터 대표 제품인 흰 우유 1(리터) 가격을 6.6% 올린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판매 가격으로 보면 2710원에서 2800원대로 올랐다. 매일유업은 900mL(밀리리터) 흰 우유 제품 가격을 9.6%, 남양유업은 8% 인상했다. 뉴시스

정부 “공공형 노인 일자리 늘린다”

내년 6만개 감축안 공식 철회 국회 “어르신 소득 감소” 지적에 전부 복구 또는 사업 조정할 듯

정부가 내년에 줄이기로 한 공익활동형(공공형) 노인일자리 공급량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요구에 따라 공공형 노인일자리 늘리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도 동의해 현재 공급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노인일자리에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으로 나뉜다. 이 중 공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재정일자리 형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포함해 정부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층의 평균 연령은 75.1세다. 상당수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렵거나 가족·지인과 교류, 모임 등 사회활동이 적은 1인 가구주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에는 이들에게 소득뿐 아니라 신체·사회활동 기회도 제공해 신체·정신건강 관리까지 돕는 나름의 ‘가성비’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공급량을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이

기로 했다. 대신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을 6만1000개로 5만2000개, 시장·사회서비스형을 5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리기로 했다.

해당 분야 경력이 없거나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70·80대의 경우 시장·사회서비스형 취업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연령 가점제’를 적용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고령층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국회의 반발이 거세다.

이달 초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르신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단순노무 등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은 것 같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공형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한 6만1000개를 전부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늘리기로 했던 고용장려금과 시장·사회서비스형을 일부 공공형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인구 감소 속 취업자 희비 2030 늘고 40대 감소 왜?

지난달 연령별 취업자 통계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20~40대 인구가 동시에 감소하고 있음에도 20~30대 취업자는 늘고 40대 취업자는 줄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631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1000명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올해 7월(-1000명)을 시작으로 8월(-8000명), 9월(-1만7000명), 10월(-1만1000명)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반면 20대 취업자 수(379만9000명)는 전년보다 2만8000명 늘면서 작년 3월(8만7000명)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0대 취업자(531만3000명)도 전년보다 6만1000명 늘면서 10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연령층의 인구가 모두 줄고 있음에도 40대 취업자만 유독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 20대, 30대, 40대 인구는 각각 626만4000명, 683만4000명, 800만57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 명, 11만3000명, 8만9000명 줄었다. 40대의 인구 감소 폭이 20~30대보다 적

20대 3만명 ↑ 40대 1만명 ↓
도소매업 경기 둔화 ‘직격탄’
평균 퇴직 연령 49세로 하향
비대면·IT 종사자 많은 20대
인구 적은데도 20개월 연속 ↑
직업훈련 등 정부지원 효과도

음에도 취업자가 줄고 있는 건 20~30대보다 고용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처럼 취업자 증감에서 20~30대와 40대가 대조를 보이는 것은 이들이 취업하는 업종과 관련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에 이어 취업자 비중이 두 번째로 큰 도소매업에 40대 취업자가 주로 종사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여파 지속과 경기 둔화 등으로 업황이 안 좋다 보니 40대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20~30대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성장한 비대면 서비스와 IT 등 디지털 관련 업종에 많은 청년들이 진출한 것이 취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40대 후반에 그치는 것도 40대 취업자 감소의 원인

이 되고 있다. 올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55세부터 64세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평균연령은 49.3세로 조사됐다. 정년(60세)보다 10년 이상 빠른 것이다.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 사업 부진,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가 대부분이다. 40대부터 안정적인 일자리에서의 퇴직 압력이 커지는 셈이다.

정부가 청년층(만 15~34세)에 일자리 지원 대책을 집중으로 펼치는 것도 40대의 취업 여력 저하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에 취업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지원(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덕분이다. 정부는 내년 청년에 대한 첨단 분야 직업훈련과 일 경험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 의욕고취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단념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 지원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할 것 없이 어느 특정 연령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주52시간제 근로 단축 효과 없다”

노동개혁안 초안 공개 “1주 야근 1개월 연장근로 따져야”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17일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개편 등 정부·경영계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대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근로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안도 담겼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연구회·전문가 간담회에서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모든 사업장에 당장 시행해도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조건에 따른 근로시간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선순환의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현행 ‘1주’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 영향과 효과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토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재량권이 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를 검토 중이다.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개편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강제를 내놨다. 유연근로제 확대도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도 늘려 장기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 확대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40대 이상만 지원”… 6급 해기사 양성 과정 생긴다

인천해사고에 교육원 설치

국내에서 처음으로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6급 해기사 학교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인생 제2막을 바다에서 시작할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인천해사고등학교에 6급 해기사 양성과정인 해기사교육원이 설립된다. 기존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은 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3급부터 5급까지의 해기사 양성에

집중돼 있어 6급 해기사가 주를 이루는 내항상선 초급 해기사 수요에 부합하지 못했다.

해수부, 한국해운조합, 인천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4개 기관은 6급 해기사 양성을 위한 해기사교육원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내항상선해기사 양성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해수부, 인천해사고는 평생교육시설인 해기사교육원을 설치 운영한다. 해운조합은 양성 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승선실습·취업을 지원

한다. 전국해상노련은 교육생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한 수당을 지원한다.

해기사교육원은 내항상선 소속부원 또는 노사발전재단 경인센터에 등록된 40대 이상 구직자가 지원 가능하며, 매년 상·하반기 교육생 40명씩을 선발해 3개월씩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수료하고 필기시험을 통과한 교육생에게 6급 해기사 자격을 부여한다.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수는 2010년 1만7831명에서 2020년 1만4975명으로 감소 추세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양육시설 자립 청년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공공임대 年 2000호 공급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정착금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며,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2000호 공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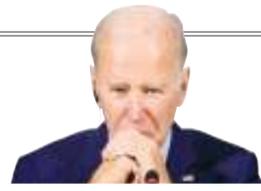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자라다 일정 연령(만 18~24세)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연간 2400명 규모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어려움을 덜어

주고, 이들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5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美 공화당, 하원 다수당 탈환...



〈조 바이든 美 대통령〉

표 정책 안갯속

양당으로 분열된 의회
행정부 견제할 최소한의 권력 쥐어
상원 의석 50석 선점한 민주당과
법안 대립 예상... 입법 혼란 우려
“경기침체에 선거패리 없을 수도”

미국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다. 앞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 미 의회는 양당이 나눠 갖게 됐다. 의회가 분열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책 추진에 큰 난관을 만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공

화당은 중간선거 일주일 만에 상원 다수당에 필요한 218석을 확보, 4년 만에 민주당을 밀어냈다. 선거 전 예상했던 압도적인 승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할 최소한의 권력을 쥐게 됐다. 일부 지역에서 아직 투표가 집계 중인 만큼 정확한 의석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NBC방송은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이 214석을 최종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50석을 선점하면서 다수당을 확정했다. 내달 있을 조지아 최종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50석을 쥐더라도 캐스팅보트(동률일 시 최종 결정권자)를 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차기 법안 통과 시 민주당에 유리하다. 다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는 등 입법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권력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선 긍정적인 수 있지만, 법안 처리를 통한 정책 집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과 증세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오히려 공화당은 지나친 정부 지출을 반대하고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아들 한터 바이든의 해외사업 거래 수사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조사 등에 관심을 보여 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법무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은 아프간에서 한터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민주당의 입법을 저지할 능력을 얻었다”며 “민주당의 양원 통제가 끝나게 될 권력의 이동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복잡하게 할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인들은 (투표를 통해) 공화당 역시 나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 하원의장에는 매카시 원내대표가 유력하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소집되면 정

식 투표를 통해 하원의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워싱턴D.C.에서 민주당의 일당 통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뉴욕증시는 결과에 상관없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경기침체에 선거 패리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이체방크의 짐 리드 테마리서치 부문 대표는 1949년 이후 지금까지 중간선거 다음 해인 대통령 임기 3년차에 경기침체가 일어난 적이 없지만, 내년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으로 침체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간선거가 긍정적인 촉매제이지만, 내년은 증시 강세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대영 기자 kodae0@



미얀마, 국경일 맞아 6000명 사면
 주인 손 터널, 일본 다큐멘터리 작가 구보타 도루, 미국인 1명 등 외국인 4명을 포함해 약 6000명을 사면한다.

17일 미얀마 양곤의 인쇄인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석방 준비를 하고 있다. 미얀마 현지매체에 따르면 군부는 이날 국경일을 맞아 비키 보먼 전 주미안마 영국대사와 아웅산 수치의 수석 경제자문원이었던 호 양곤(미얀마)/AFP연합뉴스

英, 긴축으로 유턴... ‘수백표’ 예산안 발표

정부지출 줄이고 세수확보 나서
G7 중 일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

리시 수백 영국 정부가 증세와 긴축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리스 트러스 전임 장관이 대규모 감세안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불명예 퇴진한 후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한 것이다. 영국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백표’ 예산안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증세와 지출 삭감을 통해 약 550억 파운드(약 88조 원)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지출은 350억 파운드 가량 줄이고, 세율을 조정해 200억 파운드 규모의 세수를 더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헌트 장관은 반기온 소식치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모두가 세금을 조금씩 더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국은 두 달 만에 정부 예산 기조를 긴축으로 선회했다. 9월 트러스 전 총리는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을 내놨다.

감세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른바 ‘트러스 노믹스’ 발표 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추락하고 국제 금리가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급기야 트러스 총리는 45일 만에 사임하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기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트러스 후임으로 첫 비백인이자 210년 만의 최연소 총리가 된 수백은 첫 연설에서 전임자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시장 신뢰를 되찾기 위한 예산안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수백 정부는 예산안 발표를 한 차례 미루며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이미 긴축으로의 방향 선회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됐다. 10월 영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11% 오르며 41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본과 함께 올 3분기 역성장한 두 국가 중 하나다. 영국 정부의 긴축 행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레이트 리세션(2007-09년 전 세계적 경기침체) 직후인 2010년 영국 정부의 긴축 여파로 국내총생산(GDP)이 1%가량 감소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안보 우려에... 中 ‘반도체 굴기’ 제동 거는 유럽

英, NWF 인수계약 철회 명령
獨, 엘모스 생산공장 매각 무산
“기술유출 차단·경제주권 보호”

유럽 각국이 국가 안보 우려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중국 왕토크테크놀로지사의 네덜란드 자회사 넥스페리아홀딩스가 손에 넣었던 뉴포트웨이퍼랩(NWF) 인수 취소를 명령했다. 영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넥스페리아는 최소 86%의 NWF 지분을 약 6300만 파운드(약 1005억 원)에 매각해 종전에 갖고 있던 지분율인 14%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랜트 샤프스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NWF가 넘어가는 것은 전기차와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영국의 역량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WF는 영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다. 넥스페리아는 지난 2019년 NWF의 지분을 14% 인수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NWF의 남은 지분(86%)을 전량 사들이며 회사를 손에 넣었다. 이후 NWF 공장은 생산된 제품을 넥스페리아에 독점 판매하기 시작했고, 영국 정부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새 국가안보투자법을 소급 적용하면서 인수 계약을 가로막았다. 해당 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소급 적용 사례로 따지면 넥스페리아가 처음이다. 영국뿐만이 아니다. 독일 정부도 지난 9월 중국 사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스웨덴 자회사 사일렉스(Silex)가 자국 반도체 업체 엘모스 생산 공장을 사들이고 반도체 장비회사 ERS를 인수하려던 두 건의 시도를 차단했다. 로버트 하백 독일 경제장관은 해당 결정에 대해 “중요한 인프라와 관련이 있거나, 기술이 유럽연합(EU)이 아닌 국가의 기업에 흘러갈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 인수를 매우 자세히 살펴야 한

다”면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독일과 유럽의 기술 및 경제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독일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 4일 베이징을 방문하며 친(親)중국 행보를 보였지만,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평가했다. 중국 측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넥스페리아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충격받았다”면서 “영국 정부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이에 해당 결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도 “독일 정부의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음 스텝을 결정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독일 등 유럽 정부의 결정에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제와 무역 협력을 정치화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러, 흑해 곡물수출 연장 합의 세계 ‘식량위기 우려’ 덜었다

흑해 곡물 수출 협정 만료를 이틀 앞두고 러시아가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글로벌 곡물시장은 최대 불안 요소였던 수출 협정 기한이 연장되면서 불안을 덜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흑해 지역을 통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허용하는 협정을 갱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성명에서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계속하기로 한 모든 당사자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곡물 수출 협정이 연장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식량 위기와 싸움에서 중요한 결정”이라며 “협정이 120일 연장될 예정이다. 파트너들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한 연장 소식을 확인했다.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은 유엔과 튀르키예

(터키)가 중개자 역할로 참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로 지나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7월 22일 공식 체결됐다. 이후 8월에 해당 협정이 본격 가동되면서 총 1080만 톤의 곡물이 수출됐다. 만약 당사국인 러시아가 19일이 기한이었던 협정 연장에 반대했다면 흑해 곡물 수출길이 다시 막히면서 글로벌 식량과 곡물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었다. 러시아는 그동안 협정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자국산 식량이나 비료 등의 수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러시아가 식량과 비료를 수출하는 데 남아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곡물 수출 협정은 다자간 해결책을 찾는다는 맥락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해운업 휘청이는데... 선박 구입가격 오르는 까닭은

해운 운임이 급락하는 반면 조선업의 신조선가(새 선박 구입가)는 상승 기조다. 해운업과 조선업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기준 글로벌 해상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443.29p로, 전주보다 135.92p 하락했다. 지난 6월 4233.31p로 반등한 이후 21주 연속 하락세다. 올해 1월 초 5109.6p를 기록한 최고점과 비교하면 약 71.8%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운임이 하락하는 배경으로는

고환율과 고금리 등이 꼽힌다. 이로 인해 소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물동량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해운업의 성수기에 해당하는 하반기에도 해운시장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운임 강세의 원인이 된 항만 적체 현상이 완화되고, 글로벌 해운업체도 선박 투입량을 늘리면서 더욱 하락세에 힘이 실렸다.

반면 선박 가격을 보여주는 신조선가지수는 상승세다. 15일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신조선가지수는 161.96포인트

해운업 호황 때 선박 발주 쇄도 조선사 선박 건조 야드 제한적 발주사 웃돈, 선가 상승 부추겨

상하이운임지수 21주째 하락 신조선가지수 1년새 12.84P ↑

트다. 전년 동기(149.12)와 비교해 크게 상승한 수준이다.

해양산업의 두 개의 큰 축인 조선업과

해운업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조선업은 전방 수요산업인 해운업의 경기에 영향을 받아 호황 후 장기불황을 겪는 특성이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선업과 해운업이 서로 깊이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사이클을 두고 시차가 차이 난다"고 밝혔다.

해운업이 호황일 때 선박 발주를 많이 넣으면 조선사 야드는 차기 때문에 선가가 오르는 구조다.

반면 해운업은 단기적인 물동량, 선복량, 글로벌 경제상황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건조할 수 있는 야드 자체가 제한적이고 현재로는 이미 2026년까지 물량이 다 차 있어서 발주하려는 선사들 입장에서는 웃돈을 주고라도 지금이라도 발주를 넣으려는 분위기라 선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지만, 대부분 선박이 해외에서 발주되는 점을 지적한다. 국내 선사가 발주한 선박은 전체 수주 선박의 5%에 불과한 까닭에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따라 휘청이기 쉽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CES 2023 혁신상’ 휩쓴 K가전

삼성전자 46개·LG전자 28개 SK이노, 그룹 첫 ‘최고 혁신상’ 선박 AI 등 현대중 9개 부문 수상



삼성전자 CES 혁신상 수상 제품.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를 앞두고 CES 혁신상을 휩쓸었다.

16일(현지시간)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28개 부문에 걸쳐 CES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18개 △모바일 11개 △생활가전 10개 △반도체 7개 등 총 46개의 혁신상을 받아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던 지난 ‘CES 2020’과 같았다.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은 영상디스플레이 2개, 반도체 1개로 총 3개를 받았다. 특히 TV는 12년 연속, 게이밍 모니터는 2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

다. 또 업계 최초로 하드웨어 보안칩, 지문 센서, 보안 프로세서를 하나의 IC칩에 통합해 원칩(One-Chip)으로 만든 생체인증카드용 솔루션 ‘지문인증 IC(S3B512C)’가 최고 혁신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비스포크 가전과 스마트싱스(SmartThings) 기반의 서비스, 갤럭시 Z 폴드4·플립4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이 혁신상을 받았다. 반도체에서도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와 2억 화소 이미지센서 아이소셀(ISOCELL) HP3이 포함됐다.

LG전자도 최고 혁신상 3개를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총 28개의 CES 혁신상을 받았다. LG 올레드 TV는 최고 혁신상 2개

를 포함해 모두 12개의 혁신상을 받으며 지난 2013년 첫 출시 이래 11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았다. 이 가운데 LG 올레드 플렉스는 게이밍 부문 최고 혁신상, 영상디스플레이 부문 혁신상을 각각 받았다. 또 공기 청정기 LG 퓨리케어 에어로 퍼니처와 무선청소기 LG 코드제로 A9S 신제품도 CES 혁신상을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이 CES에 참여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SK이노베이션 계열에서 총 5개 제품이 8개의 혁신상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개 제품이 최고 혁신상에 이름을 올렸다. SK온의 SF 배터리가 ‘내장기술’ 분야에서, SKIET의 플렉서블 커번 도우가 ‘모바일 기기&액세서리’에서 최고 혁신상의 주인공이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총 9개의 상을 받았다. 수상한 제품 및 솔루션은 △선박 AI 자율운항 기반 LNG 연료공급 관리시스템(Hi-GAS+) △산업단지 에너지관리시스템(CEMS) △차세대 선박 전기추진시스템(Hi-EPS) △레저보트 자율운항 솔루션(NeuBoat) 등이다. 강태우 기자 burning@



더뉴 기아 레이 ‘그래비티’ 출시 기아가 ‘더 뉴 기아 레이’의 디자인 차별화 모델 ‘그래비티’를 17일 출시했다. 이번에 추가된 그래비티는 레이의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강인한 느낌의 외관을 완성했다. 그래비티 모델은 △클리어 화이트 △밀키 베이지 △아쿠아 민트 등 총 37가지의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1815만 원이다.

사진제공 기아

LG화학, 포집 탄소를 플라스틱 원료 생산

독자 기술로 ‘CCU 설비’ 구축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감축

LG화학이 이산화탄소로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탄소저감 설비를 구축해 2050 넷제로 달성 기반을 마련한다.

LG화학은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부생가스인 메탄을 사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메탄건식개질(DRM) 설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DRM은 CCU(이산화탄소·포집·활용) 기술의 한 종류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50% 이상 저감하고 주요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탄소저감 설비다.

LG화학은 이번 DRM 공장을 외부 라이선스 기술이 아닌 자체 기술로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전환에 핵심이 되는 촉매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 자체 기술 기반의 공정과 촉매 적용으로 DRM 설비를 상업화하는 것은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회사 측은 설명했다. DRM 설비는 2023년까지 충남 대산 공장에 1000톤 규모의 파일럿 공장으로 건설된다. 이후 독자 기술로 개발된 공정 기술과 촉매를 검증하고 2026년까지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한다. 강문정 기자 kangmj@

“AI 인재 안 키워요... 자신의 가능성 발견하는 곳이지요”

가보니

LG디스커버리랩 서울

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챗봇 등 5개 분야 AI기술 실습·체험 가능 구동원리 등 ‘토론의 장’도 마련



광탄중학교 학생들이 실습 전 자율 주행 센서가 어떻게 지도를 그리고 구동하는지, 왜 중요한지 등의 원리를 배우고 있다.

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최근 개관한 LG디스커버리랩 서울은 1987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준공과 함께 만들어진 ‘LG사이언스홀’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LG는 디스커버리랩 서울의 공간을 2015년부터 조성해왔다. 2018년부터는 관련 교육 기획·개발에 나섰다. 교육 및 연구 개발에만 50명 이상 전문가가 참여했다. 또 2019년에는 1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날 찾아가면 LG디스커버리랩 서울은 1층 전시장, 2층 교육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전시장에서 자율 주행차, LG이노텍 자율주행 솔루션, 로봇팔 등이, 2층에는 4

개의(LAB 1~4) 교육장이 마련됐다.

LG는 AI 분야를 크게 △로봇지능 △시각지능 △언어지능 △AI휴먼 △데이터지능 등 5개로 구성했다. 분야별로 자율 주행, 스마트팩토리 관련 로봇, 챗봇 등 LG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AI 기술을 이곳에서 실습할 수 있다.

한 책임은 “기존 LG사이언스홀에서 인공지능으로 교육 범위를 좁혀 LG디스커버리랩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며 “외부 기관과 다르게 실제 활동하며 교육 내용을 체화시키는 ‘런 바이 두잉’(Learn by doing)을 키워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날 LG디스커버리랩 서울에서는 16명의 광탄중학교 학생들이 로봇지능 수업을 받았다. 학생들은 000 연구원이라는 명패를 테이블에 하나씩 놓은 채 4명씩 짝을 지어 앉았다. 그리고는 자율 주행 센서가 어떻게 지도를 그리고 구동하는지, 왜 중요한지 등의 원리를 배웠다. 또 12개짜리 칸에 직접 이동 경로를 만들며 열린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LG디스커버리랩은 문을 연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의 관심은 뜨겁다. 개관일(12일)에 이미 내년 1월 교육과정까지 마감될 정도다.

글·사진 강태우 기자 burning@

“손으로 터치 않고 디스플레이 조작”

현대모비스 ‘퀵메뉴 셀렉션’ 세계 첫 개발

운전 중 디스플레이를 직접 터치하지 않고도 원하는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현대모비스는 세계 최초로 근접인식 반응형 팝업 디스플레이 ‘퀵메뉴 셀렉션’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뉴 프리 인포메이션’으로도 불리는 이 기술은 이름 그대로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근접 센서를 적용, 번거로운 터치스크린 중복 조작을 최소화해 자주 쓰는 메뉴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이다.

퀵메뉴 셀렉션은 사용자가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접근하면 사용 빈도가 높은 세부 메뉴를 자동으로 팝업해 준다. 손을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디스플레이와 일체화된 근접 센서가 감응하는 방식이다. 또 메뉴를 넘기는 제스처만으로 원하는 메뉴를 찾

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대모비스는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 운전자의 동작을 최소화하고 시야 분산 방지로 안전운행을 돕는 등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적외선 센서를 차량 내 위치 센싱에 적용한 세계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현대모비스는 시간차 발광 센싱 기술을 활용해 센서 수량을 최소화하고, 손 모양과 방향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식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자동 화면 보정(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적용했다.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쉽도록 센싱 거리와 위치를 인식하는 반응형 UX(사용자 경험)·UI(사용자 인터페이스) 솔루션도 탑재했다. 이민재 기자 2mj@

13.5조➡16조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 중기·벤처 '안도'

소상공인 어려움에 2.5조 증액 국회 “중기 3高 복합위기 반영” 스마트공장·모태펀드 등 늘어나 업계, 경영난 위기 딛고 한숨 돌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2조5000억 원가량 증액된 16조 원으로 국회 예산소위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중기부는 올해 예산보다 5조2793억 원, 28% 줄어든 13조5619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긴축재정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高) 위기’ 등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으로 판단하고 줄어든 정부 예산을 다시 증액했다.

17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6조703억 원으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서 통과됐다.

올해 예산 18조8412억 원보다 2조7711억 원 줄어들었지만, 애초 중기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5133억 원 늘어났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실질적인 최대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한다.

중기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 부처 가운데 가장 큰 비율로 줄어들었다. 중기부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화폐, 모태펀드, 스마트공장, 노인 일자리 예산 등 각종 민생과 기업 경영에 직결되는 예산이 감축

했다. 중기부의 예산이 10년간 단 한 번의 감축 없이 증액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중기 지원의 변곡점으로 인식됐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으며 감축 예고된 정책 관련 기업과 단체들은 곡소리를 냈다.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1조5000억 원 늘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9500억 원 증액했다.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 융자 관련 사업을 큰 폭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500억 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3000억 원 등이 증액됐다.

2000억 원 감축돼 논란이 됐던 스마트공장 사업은 1396억 원이 늘어났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민간투자주도 방식의 스케일업 TIPS 확대를 고려해 정부안의 삭감액 대비 절반가량 증액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도 내년 예산이 29% 대폭 축소됐지만, 국회서 192억 6000만 원이 살아났다.

통상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줄어드는 것이 순리다. 재정건전성과 일부 부풀린 정부 정책 예산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 크게 반영됐다. 국회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살려낸 것으로 업계는 판단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내년도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보증을 늘렸다”며 “벤처투자와 창업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한 정부 재정 역할도 충실히 이뤄지도록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서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안에 대해 관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스마트공장 관련 협의회 관계자는 “산업단지 스마트팩토리 구축은 전 세계적인 추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단위 : 원)



세인데 이 예산이 3분의 2가량 줄어들어 경영난을 예상했다”며 “전체 예산보다 일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다들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기부도 증액된 예산 관련 사업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이 다시 증액되면서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좋은 정책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국회서 좋은 방향으로 의결했으니 이를 충실히 실행 정책이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제로페이’ 예산은 줄어 소상공인 핵심사업 뼈격

94억서 36억 감액해 의결 유지위한 최소 비용만 남겨 “젊은층 많이 썼는데 걱정”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으로 불리는 ‘제로페이’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 제출안보다 줄었다. 지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던 소상공인 관련 핵심 사업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정부가 제출한 제로페이 예산 94억 원에서 36억 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고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제로페이 결제망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해 정부 제출안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국정감사에서 제로페이를 확대하지 말고 내실을 다지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에 설치된 제로페이를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남긴 것으로 말로 ‘내실 다지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8년 서울 등 일부 지자체단체(지자체)에서 시범 도입돼 2019년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정부는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2019년 60억 원 △2020년 102억 원 △2021년 135억6000만 원 △2022년 102억 원으로 총 399억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제로페이 누적 가맹점의 수도 △2018년 1만6000개 △2019년 32만4000개 △2020년 72만9000개 △2021년 138만3000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제로페이에도 직진호가 켜졌다. 제로페이로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업 자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것이다.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구예지 기자 sunrise@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必



KOGAS가 FILL합니다

당신과 함께할 H₂O 를 가득 채웁니다.

KOGAS가 수소경제와 에너지 대전환의 선두주자가 되어
우리 일상을 깨끗한 에너지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H₂U 는 수소사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담은 한국가스공사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게임의 세상’ 속으로... 2900여개 부스 ‘구름인파’

‘지스타2022’ 화려한 개막

3년 만의 게임축제 인산인해
넥슨·넷마블 등 신작 공개
“사전예매 입장권 모두 마감”
안전 관련 인력 550명 배치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2가 막을 올렸다. 첫날부터 지스타를 기다려온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지스타 측은 안전 관리 속에 내부 밀집 없이 진행됐다.

지스타 2022는 17일 오전 10시 개막식과 함께 20일까지 4일간의 게임 대축제를 시작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해 이정현 넥스코리아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김창환 크래프톤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스타는 슬로건인 ‘다시 한번 게임의 세상으로’의 영문 버전 ‘The Gaming Universe’를 박 시장 등 참석자들이 한글 자씩 들어 올려 완성하는 것으로 본격 행사에 들어갔다.

이번 지스타는 BTC관 174개사 2100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가 개막한 1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 찾은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2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43개국 987개사 참가해 게임전시, 비즈니스, 콘퍼런스, 이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부스, BTB관 814개사 847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박 시장 등은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넥슨 등의 부스 투어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생태계를 중심으로 NILE(NFT Is Life Evolution) 등을 소

개했다. 넷마블은 게임 캐릭터로 분장한 모델들을 앞세워 이목을 끌었다. 박 시장 등은 게임 속 무기를 직접 들어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가장 큰 규모로 부스를 준비한 넥슨은 대형 LED를 통해 넥슨의 지스타 컴백을 알렸다.

오전 11시가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관람객들의 입장이 시작됐다. 순차적으로 나뉘어 입장이 진행되고 지스타 운영 요원, 보안 요원, 경찰 등이 모두 배치돼 입장을 안내했다. 지스타에 따르면 경찰, 소방 등을 포함해 안전 관련 인력 약 550명이 배치됐다.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안전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입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전요원들은 입장객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입장시키면서 전시장이 과밀화되지 않도록 유지했다. 사고 위험이 있는 에스컬레이터 등에는 모두 안전요원이 위치해 일정 숫자 이상 한번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했다.

BTC관이 위치한 1전시장과 BTB관 2전시장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내부 밀집도도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이번 지스타 2022는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진행된 지스타에는 2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 특히 수능이 끝난 뒤 첫 주말인 19일과 20일에 지스타를 찾는 관람객이 가장 많을 전망이다. 다만 지스타 측은 일일 관람객 규모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스타 관계자는 “여러 단계에 걸쳐 ‘안전’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루 관람객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전예매도 모두 마감됐지만 숫자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날 현장 예매 대기 줄도 빠르게 줄어들었다”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방문해도 충분히 입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정수천 기자 int1000@

‘300부스’ 넥슨·‘이벤트 매치’ 넷마블 시선집중

‘지스타 2022’에 단일 최대인 300부스 규모로 참여한 넥슨이 압도적인 중앙 LED와 520여 개의 시연기기로 ‘핫 플레이스’가 됐다. 넷마블도 인플루언서 대전 등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넥슨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2’에서 메인 슬로건 ‘귀환’을 앞세워 초대형 LED와 대칭되는 시연대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눈에 담기 힘든 스케일에 끌린 관람객들은 전시장 입장과 함께 넥슨 부스로 이끌렸다.

이번 지스타에서 넥슨은 역대 처음으로 콘솔 시연을 선보였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루트슈터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를 플레이스테이션5와 PC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울산에서 온 한 20대 관람객은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은 굉장히 많이 새로운 시도”라며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게임을 잘 시도하지 않았는데, 평소

넥슨, 콘솔 게임 첫 시연 ‘넷마블 오버프라임 기대’

하고 싶었던 장르인데 국내 게임사에서 출시돼 가장 먼저 해보려고 왔다”며 첫 방문지를 넥슨으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넥슨은 참신한 재미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해양 어드벤처 ‘데이버 더 다이버’는 닌텐도 스위치로 제공했다. ‘마비노기 모바일’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도 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넷마블 부스에서는 오후 2시부터 인플루언서 ‘팀 프뜨프뜨’와 ‘팀 쫘득’이 팽팽한 이벤트 경기를 이어가며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현장에 마련된 시연 부스에는 짧게는 50분에서 길게는 90분이 넘는 시간을 대기해야 할 만큼 신작에 대한 관람객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날 모처럼 수능 시험일을 맞아 현장에 방문한 민호철 군(18)과 이동규 군(18)은 오버프라임의 이벤트 매치를 보고 시연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군은 “오버프라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인플루언서 경기를 보고 재미 있어 보여 줄을 서게 됐다”라면서 “평소에는 롤(리그오브레전드) 같은 게임을 많이 했는데, 비슷한 장르이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군 역시 “친구를 따라서 이번에 처음 지스타를 방문했다”면서, “넷마블 게임은 ‘모두의 마블’ 정도만 해봤는데 오버프라임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게임쇼 게임스컴 3관왕을 차지한 네오위즈의 ‘P의 거짓’도 지스타 2022 인기 시연 게임으로 떠올랐다. BTB관에 위치한 네오위즈 부스에는 ‘P의 거짓’을 직접 해보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정수천 기자 int1000@

장현국 “위믹스 예측 못해... 공시 철저히”

“유의종목 지정, 소명 다해”

“유의 종목 지정과 관련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잘못이고, 문제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홀더나 주주가 불확실성에 노출된 건 회사, 그리고 대표인 내 책임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싶다”

장현국(사진) 위메이드 대표는 17일 오후 3시부터 지스타 2022가 개최되고 있는 부산 벡스코 프레스룸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직까지 위믹스가 국내 4개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데에 대한 대표 차원의 사과다.

앞서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는 지난달 27일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4개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출금 상환 등으로 유의 지정의 쟁점이었던 초과 유통량을 일부 해결한 듯 보였으나, 지난 10일에 ‘유의 지정 연장’을 통보받았다.

장 대표는 해당 사안에 대해 “DAXA와 관련 커뮤니케이션 10여 차례 진행했고, 수 차례 대면 미팅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일 간담회에서 한 ‘상장 폐지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된 정보를 봤을 때, 거래소가 유의 지정의 원인으로 지목한 ‘유통량 차이’에 대해 답을 못한 것은 없다”라면서 “당시 합리적인 추론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유의 지정 사유에 대한 소명에 최선을 다했음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또한, 장 대표는 유통량과 관련해 제기된 9월 코코아파이낸스 대출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코코아가 얼마나 건강하지 2분기 때 10억 정도 대출을 받았고, 위믹스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청산된 적이 있지만, 이는 이미 분기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DAXA는 위믹스의 처분과 관련해, 유통량 관련 ‘선례’를 남기는 것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시은 기자 zion0304@

FTX 사태, 국내로 확산... 고팍스 ‘이자지급 지연’

美제네시스, 상환 일시중단 여파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 공포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까지 엄습하고 있다. FTX 파산으로 고팍스가 운영하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

고팍스는 16일 11시 50분께 공지를 통해 “현재 고팍스 자유형 상품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고팍스는 발표가 있기 전 상환 요청했으나, 상환은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6일(현지시각) 미국 코인데스크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및 커스터디 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FTX 파산으로 상환 및 신규대출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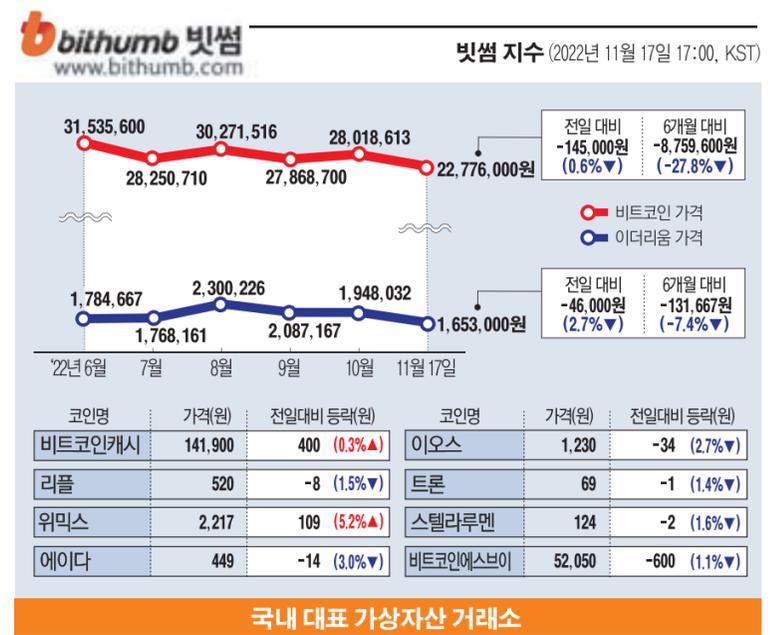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자회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대출금은 3분기 말 기준 28억 달러(약 3조7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FTX 계좌에 1억7500만 달러(약 2324억 원)가 묶여있다. 데라 이슬림 제네시스 트레이딩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시장 혼란 가중 및 상환 요청 급증에 따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대출과 상환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제네시스의 상환 중지는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에도 영향을 줬다. 현재 고팍스에서 가상 자산을 예치해 이자 수익을 받는 고팍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중 자유입출금 상품으로 △USD달러(USDC)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

트코인캐시(BCH) 등이 있다.

고팍스에 따르면 해당 상품들은 제네시스 캐피탈이 운영한다. 또한 예치 중인 가상자산은 거래가 불가능하며, 입금 및 출금 대기 중인 건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제네시스 캐피탈은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 및 모회사인 DCG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DCG(Digital Currency Group)는 고팍스 2대 주주로 고팍스 예치 자산을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팍스 서비스가 아닌 고팍스에 예치된 자산은 100% 이상 보유 중으로 입출금에 영향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금리 치솟자...” 은행 超단기예금 1년새 2배 늘었다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돈 몰려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금리에 시중 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특히 6개월 미만 초단기예금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모습이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09조44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3조8183억 원보다 20.6%(155조 6200억 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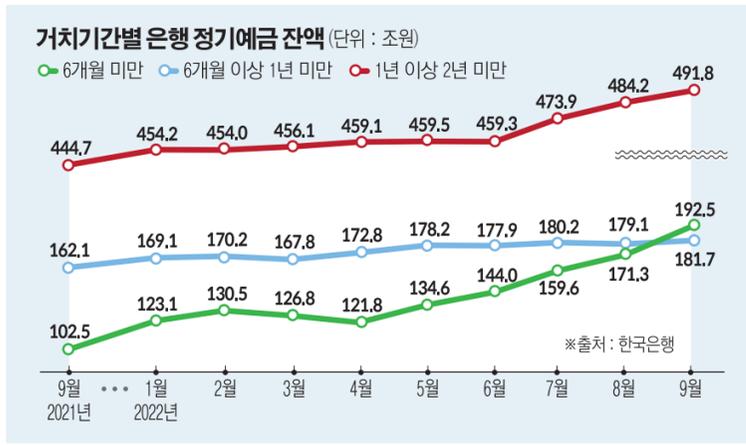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잔액이 크게 늘었다. 9월 말 기준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192조510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조5260억 원)보다 8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만기가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예금은 162조1430억 원에서 181조7452억 원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만기가 1~2년인 예금의 잔액은 10%밖에 늘지 않았다.

9월 193兆 전년비 90兆 급증

전체 정기예금은 21% 늘어나 시중銀예금 연말 6%대 전망에 소비자 “단기운용 효율적” 판단 은행 중장기 운용 안정성 저하

이처럼 단기 예금이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예금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언제 금리가 더 오를 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금융 소비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미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가 5%를 돌파했으나,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다. 이미 상호금융권이나 저축은



행의 특판 상품은 6%대를 돌파한 상황이다. 당장 오는 24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인상폭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올 연말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도 6%대를 넘어설 것

에 없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에서도 굵지 않은 눈길을 보이고 있다. 시중 은행에 자금이 쏠릴 경우 2금융권으로 향하는 돈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당국에서는 ‘수신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고 시중 은행에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수신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은행들은 설명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예·적금 상품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적용금리가 달라진다”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장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당분간 수신 금리는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3.00%다. 시장에서는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가 3.25~3.5%로 0.25~0.5%p(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선영 기자 moon@

국내은행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5兆 ‘5%↓’

비이자익 줄고 대손비용 늘어 이자익 40.6兆 전년비 6.9兆↑

올해 1~3분기 국내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5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5조 7000억 원)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이자이익이 6조9000억 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매매 손실 등으로 인한 비이자이익이 4조5000억 원 감소했고, 대손충당금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3분기 누적 차자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 동기(0.68%)보다 0.10%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76%에서 8.10%로 0.65%p 내렸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분기 누적 4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33조7000억 원)보다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자마진(NIM)도 상승한 데 기인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6조1000억 원)보다 4조4000억 원 하락했다. 유가증권 손익이 2조1000억 원 줄었고, 수수료 이익이 4000억 원 감소한 탓이다. 외환·파생 관련 이익은 작년보다 1000억 원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18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7조 5000억 원)보다 3.5%(6000억 원) 상승했다. 인건비는 11조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물건비는 7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3분기 누적 대손비용은 4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4000억 원) 대비 71.8%(1조7000억 원) 상승했다. 올해 2분기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으로 신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은행권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충당금을 확대하고 있다.

영업외손익은 31억 원, 법인세 비용은 5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9.7%, 3.5% 감소했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자본비율이 취약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 관리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대부업 제도 개선

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요건 단순화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 기준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다. 올해 6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자는 21곳이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을 2조6000억 원 공급해 등록 대부업자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잔액요건(저신용대출 100억 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유지요건 심사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이용재 “내년 3高 후유증... 세계경제 2.3% 성장 그쳐”

세계경제·금융시장 설명회 IMF 세계 경제 전망치 하향 실물·금융 변동성 확대 전망

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올해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각국이 긴급처방으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한 해였다면 내년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의 후유증이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전망 및 이슈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정책 대응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40년 이래 최고 수준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고강도 통화긴축에 나서고, 이로 인한 고금리, 고회환 현상이 심화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는 지난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전망 및 이슈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유튜브 캡처

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며 “국제금융시장도 긴축적인 금리 여건을 맞아 세계 주가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세계경제에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곳곳에서 경기침체, 신용경색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IMF 등 국제기구도 내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올해보다 낮게 잡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제금융시장은 향후 3고 현상의 완화 기대로 주가가 반등을 모색하고 금리와 환율이 그동안 상승세에서 일부 반등하는 등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 주요 이슈로 △주요국 통화정책의 방향 △글로벌 통화전전 △글로벌 달러 유동성 위축의 파장 △중국 경제 성장률 위축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위험 등 5가지를 꼽았다.

이 원장은 “내년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모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환경으로 올해 못지않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내년에는 위기의 터널을 넘어 희망의 빛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0.1%)와 코로나 팬데믹(2020년 -3.0%)을 제외하고 최근 20년간 최저 수준이다. 이재영 기자 lry0403@



KB국민은행, MS와 메타버스 협력 KB국민은행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6일 KB국민은행 여의도 IT센터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윤진수 KB국민은행 테크그룹 대표,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등 양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증강현실(AR) 공동 과제 발굴 △증강현실(AR)과 혼합현실(MR) 활용 금융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기은 ‘IBK창공’ 산·학·연 기술매칭 프로그램

육성기업 보유기술 고도화 지원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이 육성기업들의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해 9월부터 ‘산·학·연 기술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산·학·연 기술매칭 프로그램’은 IBK창공 육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기술과 대학·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매칭해 기술도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 등 5개 대학, 한국발명진흥회가 참여했다. 기계, 바이오·의료, 소재,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1200여개 기술을 교류해 13개사에 21개 기술이 매칭 완료됐다.

실제로 IBK창공은 올해 4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의 기술 교류회를 통해 암 재발 시점 조기 예측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육성기업에 ‘미래건강 예측 시계열 집중지능 딥러닝 엔진기술’을 매칭하는 등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술 교류가 활성화돼 육성기업들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우량기업마저 ‘돈가뭄’... “장기어음 발행하고 대출 늘려”

지난 10일 SK(주)는 3년물과 5년물 기업어음(CP)을 각 1000억 원씩 발행했다. CP는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기 때문에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은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과 공공기관들마저 회사채 발행에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 CP로 방향을 바꿨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 이후 채권시장은 다소 진정세에 접어든 모습이지만,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다.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마저 회사채 발행에 난항을 겪으면서 돈줄이 마른 기업들은 장기 기업어음(CP), 은행 대출, 계열사 차입까지 불사하며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일 기

준 CP 발행잔액은 114조61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82조8607억 원)와 비교하면 32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이 중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CP 규모는 34조 원으로 전체의 29.7%가량을 차지한다.

올해 들어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만기 6개월 이상의 CP 발행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지만, 신용등급이 AA+로 초우량한 SK(주)마저 회사채 발행이 아닌 장기 CP로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시장의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회사채 시장은 6년 만에 상환액이 발행액을 넘어선 ‘순상환’ 상태로 전환됐다.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꺼리고 있어서다. 지난달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한 한화솔루션(

CP 발행잔액 115兆 올 32兆↑
1년 이상 장기CP 비중 30%
10월 은행 기업대출 1169兆
대기업 전월비 9.3兆 최대 증가
금리인상기 신용 리스크 확대

AA-), LG유플러스(AA)는 모집 금액보다 적은 주문을 받으며 완판에 실패했다.

은행 대출 창구로 향하는 대기업도 늘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116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한 달 새 9조3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

장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에 부딪힌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로부터 1조1000억 원의 차입금을 빌리기도 했다.

문제는 ‘풍선효과’다. 국고채, 회사채 금리 상승세가 꺾인 것과 달리 CP(91일) 금리는 전날 5.30%까지 치솟으며 연일 연고점을 새로 쓰고 있다.

기업들의 장기 CP 발행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크다. CP를 장기물로 발행하면 회사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장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뜰이나 찬바람 부는 회사채 시장이 더욱 위축될 공산이 크다.

내년까지 이어질 기준금리 인상으로 덩달아 높아질 대출금리 역시 기업들이 치러야 할 비용을 늘린다. 더구나 지난달 중순

이후 자금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된 점을 고려하면 기업대출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연말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조정 여부도 불안 요인이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돈맥경화’가 한풀 꺾이더라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저하,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신용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높아져 연초 단기자금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연초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는 기업들의 은행 차입 등 간접 자금 조달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viajaportlune@

IPO 한파에 공모주펀드 설정액 ‘반토막’

지난해 말 6.6兆서 4兆로 폭락 부진에도 엔젷·큐알티 등 상장

기업공개(IPO)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공모주 펀드 시장마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17일 펀드평가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 146개 공모주펀드 설정액은 3조99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설정액(6조5519억 원)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은 셈이다. 지난달 초부터 한 달 새 4215억 원 규모가 빠져나갔다.

월별 기준으로(1일) 살펴보면 △7월(5조1916억) △8월(4조9658억) △9월(4조6976억) △10월(4조4130억) 순으로 매달 3000억 가까이 유출 흐름이 뚜렷하다.

최근 3개월, 6개월, 연초 이후, 1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에프엔가이드가 분류한 46개 전체 펀드 테마 가운데 최대 자금 이탈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공모주펀드의 환매로 혼합채권형 펀드 유출세도 확대되고 있다. 혼합채권형 펀드는 통상 공모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평상시엔 채권으로 안정적 자산을 굴리다가 공모주를 편입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지난해 혼합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공모주에 막대한 자금이 몰리면서 뭉치돈을 빨아들이는 효과를 누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혼합채권형 펀드에는 2017년 이후 사상 최저 규모인 1700억 원이 유입됐다. 지난해 같은 달(7274억)과 비교하면 약 76% 감소했다. 지난달까지 혼합채권형 펀드에 유입된 금액은 5조975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조5094억 원)보다 3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들어 혼합채권형 펀드는 1월을 제외하고 순유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공모주 펀드의 부진한 흐름에도 하반기기업공개(IPO) 시장은 공모가를 대폭 낮추면서도 상장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올 초 현대엔지니어링, SK윌더스 등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상장을 철회한 것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최근 코스닥 상장에 나선 조정밀 프린팅 기업 엔젷은 기관 수요 예측에서 42.15대 1 경쟁률을 받아들였다. 큐알티와 플라즈맵도 각각 86.97대 1, 39.78대 1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들의 일반 청약 경쟁률도 저조하다. 큐알티는 7.44대 1, 플라즈맵 2.76대 1, 엔젷 1.86대 1 수준이다.

정희민 기자 hihello@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

자본시장 동향 관련업계 간담회
투심 위축·준비 부족 등 지적해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주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금투협 세제지원부장, 정창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 투자심리 악화 △충분한 시간 필요 △납세자 및 투자자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 훼손 △세제 세부 내용 보완 필요 등을 이유로 금투세 내년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투자심리 악화에 대해 익명의 참석자들은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금투세로 세후 수

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해외투자가 일반화되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보다 매력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을 두고 한 참석자는 “내년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를 도입하고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므로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투세세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에 대해 한 참석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 국 통화 간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정합성 제고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등 한국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민규 기자 pmk8989@

“회원사 이익 대변이 곧 자본시장 키우는 길”

금투협회장 후보에 물다

서유석 前 미래에셋운용 사장

증권·운용 두루 거친 전문가
장기과제로 ATS·BDC 추진

“사원부터 시작해 사장까지 올라가며 증권사와 운용사를 두루 경험하고, 능력도 입증했다.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인 증권업과 자산운용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제6대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유석(사진) 전 미래에셋증권·자산운용 사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운용사 출신으로만 조명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서 후보자는 출마 계기에 대해 “증권사 23년, 운용사 11년 경력을 쌓으며 한국 자본시장을 키우고, 업계도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배운 게 자본시장이니 이를 활용해 자본시장과 업계 발전에 기여하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협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조현호 기자 hyunho@

인데, 이는 결국 자본시장을 키우는 것”이라며 “전대·현대·후대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대체거래소(ATS)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TS에 대해 서 후보자는 “주식과 예탁증권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증권형 토큰(STO) 등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도록 할 것”이라며 “거래소와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해가는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래소보다 더욱 유연하고,

거래소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상품을 거래하는 등 다른 성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금투업계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먹거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DC를 두고는 “개인이 편하게 벤처에 접근하고 현금화하기도 쉬워 긍정적”이라며 “모험자본을 제공하고 더 좋은 투자상품으로 자리를 잡게끔 돕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 후보는 “ETF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해 ETF의 원활한 상장이 이뤄지도록 하고, 전 국민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이슈가 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는 “소득 과세는 당연한 원칙이며, 금투세는 정부, 국회, 학계, 업계가 힘을 합쳐 만든 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며 “다만,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충격을 없애는 등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직면한 여러 현안에 발 벗고 나서서 대신 일하겠다”며 “회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협회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백민규 기자 pmk8989@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과 장화진 구글클라우드 코리아 대표이사, 빅데이터페스티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證 ‘2022 빅데이터 페스티벌’ 성료

미래에셋증권은 구글클라우드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2년 빅데이터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빅데이터 페스티벌은 올해 6회를 맞이하는 미래에셋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분석 역량을 뽐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종 대상은 ESG 부문의 리빙머신팀이 수상했다. 리빙머신팀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Dart의 경영공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로 취합, 기업별 ESG 등급을 평가한 뒤 태블로 기반의 대시보드 및 ESG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해요



선한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 같이 힘내요 🦵🦵

매년 더 뜨거워지는 지구를

우리 같이 지켜요 🌍🧐

e스포츠 국가대표팀과

우리 같이 뛰어요 🙌🙌

원하는 차 쉽게 만나도록

우리 같이 모여요 🚗👥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동네 선한가게 지원

🌱 탄소중립 추진 및 ESG금융 지원
플랜 제로 100

🎮 새로운 감동이 될
e스포츠 국가대표팀 후원

🚗 은행, 카드, 캐피탈의 힘을 모은
우리WON카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너무 비쌌나”... ‘하림 야심작’ 즉석밥 점유율 5%도 안되네

더미식밥 3분기 성적 기대 이하
CJ ‘햇반’ 보다 24% 비싸

출시 1년 안돼 성과 평가 일러
하림 “생산 늘려 존재감 키운다”

하림이 야심 차게 선보인 즉석밥 ‘더(The)미식밥’이 실망스러운 첫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 3분기 시장 점유율이 5%에 미치지 못했다. 목표치인 10%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이다.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림은 점유율 반등을 위해 제품 생산라인 증설 등 공격적인 경영을 펼친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즉석밥 시장(매출액 기준)에서 CJ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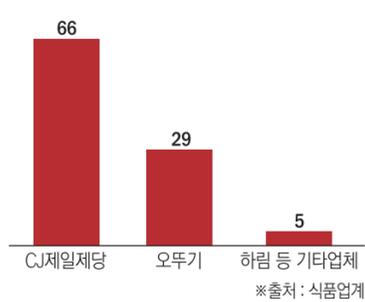
일제당(66%), 오뚜기(29%)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하림 등 기타업체들의 점유율은 5%로 집계됐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동원F&B와 자체 상표(PB)로 제품을 선보이는 대형마트를 고려할 때 하림 점유율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림은 올해 5월 더미식 밥을 출시했다. 더미식 밥은 다른 첨가물 없이 100% 국내산 쌀과 물로만 지었다. 주요 생산라인에는 최첨단 무균화 설비인 클린룸을 운영한다.

더미식 밥에 대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관심은 지대하다. 신제품 출시회에 직접 참석해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당시 김 회장은 “하림의 식품 철학은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로 최고로 맛있는 식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 즉석밥 시장 업체별 점유율 (단위: %) ※ 2022년 3분기 매출액 기준



목표치에 대해 허준 하림산업 대표는 “전체 즉석밥 시장에서 점유율 10% 이상 가져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림 더미식 밥이 부진한 데는 비싼 가격이 크게 작용했다. 더미식 백미밥(210g) 가격은 2300원이다. CJ제일제당 ‘햇반

가격(공식 온라인몰 기준, 1850원)보다 약 24% 비싸다. 최근 유례없는 물가 상승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하림 제품을 선택 구매하기 어려워졌다.

하림은 한동안 더미식 밥을 저렴한 가격에 내놨다. 올해 6월 한 대형마트는 더미식 밥 12개 묶음 제품을 구매할 경우 12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행사를 했다. 더미식 밥이 개당 약 750원에 판매된 것이다. 마트 판매 가격은 해당 마트와 식품업체가 서로 합의해 결정한다. 할인 행사에도 하림은 CJ제일제당, 오뚜기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낮은 점유율에도 더미식 밥 성과를 당장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제품이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 변수로 인해 시장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다.

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자 하림은 9월 더미식 밥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북 익산에 있는 퍼스트친 밥 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설했다.

그럼에도 하림의 고민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신사업의 일환으로 선보인 가정간편식(HMR)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림은 더미식 밥 출시 이전에 지난해 ‘더미식 장인라면’을 선보였다.

더미식 장인라면은 육류 재료와 버섯, 양파 등 각종 양념 채소를 20시간 끓여 만들었다. 이러한 장점에도 더미식 장인라면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IQ코리아에 따르면 더미식 장인라면은 주요 라면 브랜드 매출액 순위(올해 8월 누적 기준)에서 ‘톱(Top)20’에 진입하지 못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홈플러스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 계절” 홈플러스는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따뜻한 국물 요리를 찾는 고객 수요를 반영해 따뜻한 국물 요리 신상품 2종을 출시하고 30일까지 국, 탕, 찜 등 국물 간편식 할인행사를 전개한다. 홈플러스는 신상품 ‘풀무원 두부짬뽕’을 1000원 할인해 4980원에 판매하며 2개 구매 시 10%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다시 북적이는 휴게소... 컨세션 사업 ‘정상궤도’

〈다중이용시설 입점 식품사업〉

가평휴게소 운영 SPC삼립
3분기 매출 작년보다 17% 늘어
급식 부활 CJ프레시웨이 33% ↑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으로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았던 컨세션 사업이 리오프닝에 따른 외부활동 및 유동 인구 증가에 정상궤도에 올랐다. 컨세션 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해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식품사업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풀무원의 식품서비스유통사업은 올해 3분기 누적 5012억 원으로 전년 동기(3944억 원) 대비 27% 성장했다. 식품서비스유통사업은 휴게소나 컨세션과 같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푸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카테고리다.

풀무원의 식품서비스 유통사업은 2019년 6633억 원의 매출을 거뒀지만 이듬해 코로나 여파에 4963억 원으로 25% 뒷걸음질 쳤으며, 지난해에도 5309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거리두기 해제 후 이용객이 늘고 산업체와 군 급식 중심의 신규 수주가 매출 증가

로 이어졌다. 추세대로라면 6700억 원의 매출로 코로나 직전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포함한 컨세션 사업은 코로나 엔데믹에 많이 회복했다”면서 “단체 급식도 군 급식 등 새로운 사업이 열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전국 휴게소 매출 2위로 알려진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가평휴게소를 운영하는 SPC삼립의 컨세션 사업도 상승장구다. 이 회사의 컨세션 사업이 포함된 푸드 사업 매출은 올해 3분기 누적 599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8% 올랐다. SPC삼립은 휴게소에 던킨과 배스킨라빈스, 파스쿠찌를 입점시켜 운영 중이다. 박찬솔 SK증권 연구원은 “휴게소의 매출액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봤다.

CJ프레시웨이의 올 3분기 식자재 유통사업 매출은 57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3% 늘었다. 단체급식 사업으로는 역대 분기 최고치인 163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9.2%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골프장과 워터파크, 휴게소 등 레저·컨세션 사업이 약 71% 성장했다. 회사 측은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레

저와 컨세션 사업조치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오피스·산업체 카테고리에서는 일일 식수 1000명 이상의 대형 고객사 수주에 성공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메뉴 운영 역량 강화와 간편식 테이크아웃 코너 ‘스넥픽’의 확대, 점포별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프레시밀’ 출시 등 신규 서비스가 고객 호응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롯데GRS의 컨세션 사업도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 3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했다. 롯데GRS는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사업장 운영권 획득 사업인 컨세션 사업을 2016년 강동경희대병원을 시작으로 공항·역사·호텔·놀이공원 F&B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현재 15개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휴점 중인 매장이 정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확산 이전인 2019년도 매출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롯데GRS는 2027년 오픈 예정인 중부고속도로 하남 드림휴게소 환승형 복합휴게시설 개발에 참여해 컨세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주현 기자 joo@

치킨·와인부터 TV까지 할인 유통가 ‘월드컵 마케팅’ 슈팅

롯데홈쇼핑, 스포츠 상품 편성
GS25, 축구팬 위한 와인세트
쿠팡 ‘TV 기획전’ 집관족 공략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축구 마케팅’에 시동을 걸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카타르에서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는 ‘파이팅 일레븐’ 특집전을 진행한다. 17일 밝혔다. 행사 기간 대한민국 선전을 응원하는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응원하기’를 클릭하면 1만 원의 쇼핑 지원금을 제공하며, TV 방송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 적립 혜택도 준다.

특히 집에서 경기를 시청하는 ‘집관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경기 시간대(20시~01시) 스포츠 행사 시즌 인기 상품을 집중 편성한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이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레포츠, 여행, 식품 등에서 남성 고객 주문액이 최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GS25는 축구 팬들을 겨냥한 프랑스 랑독 지역에서 생산한 ‘르쁘네 꼬소네’를 최근 출시했다. 축구경기를 즐기며 응원의 재미를 증대하고자 축구 명문 국가의 국기 6종(한국,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프랑스)을 선정해

와인의 라벨에 표현했다. GS25는 ‘르쁘네 꼬소네’ 와인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준비했다. 내달 말까지 한국 경기가 있는 당일 와인 음용 사진 SNS 게재 이벤트를 개최한다.

세븐일레븐은 대한민국 축구 경기 당일 모바일 앱(세븐앱)을 통한 ‘우리나라 득점 모바일 상품권 특가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경기 예상 스코어 맞춘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세븐일레븐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있다. 치킨, 맥주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23일까지 수입 맥주 16종에 대해 하나카드로 4캔 이상 결제 시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경기가 치러지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의미로 16%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은 응원 아이템과 축구용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기획전은 내달 18일까지 진행한다. 쿠팡은 거리응원이 취소돼 늦은 저녁 경기를 ‘집관’하게 될 고객들을 위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 준비된 테마는 ‘쿠팡 only 야식’ ‘로켓축구 인기스낵’ ‘비알콜 음료’ ‘TV 기획전’ 등으로, 집관할 때 먹기 좋은 간편 식품부터 대형 TV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11번가는 ‘집관족’ 맞춤형 상품 200여 개를 엄선해 선보이는 ‘코리아 파이팅’ 기획전을 실시한다. 김혜지 기자 heyji@

유튜브 품고 크리에이터 영입... 라방에 폭 빠진 유통가

11번가, 유튜브 쇼핑에 상품 연동
CJ온스타일, 인기 유튜버와 방송

11번가와 위메프, CJ온스타일 등이 유튜브와 파트너십을 맺고 라이브쇼핑(라방)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MZ 세대는 물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유튜브 및 라방을 통해 성장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1번가는 유튜브와 쇼핑 파트너십을 맺고 연말까지 ‘유튜브 쇼핑’ 기능을 활용한 라이브 쇼핑 방송을 40여 개 선보일 계획이다. 11번가가 ‘LIVE11(라이브11)’의 유튜브 동시송출 형태로 유튜브에서의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해 온 것이 5월부터다. 11번가 앱 내 LIVE11 방송을 LIVE11 유튜브 채널 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채널에서 동시송출 하는 형태로, 10월 말까지 140여 개 방송을 진행했다. 11월에는 130



CJ온스타일과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예씨’. 사진제공 CJ ENM

여 개 방송이 예정돼 있다.

10월부터는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스트리밍에 11번가 판매상품을 연동하는 기능을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쇼핑’ 기능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에 11번가 상품을 연동하기 시작하면서, 방송 중 크리에이터들이 소개한 상품은 방송 화면 및 하단에 생성된 ‘상품’ 배너를 통해 11번가로 이동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CJ온스타일 역시 이달 3일 구글과 유튜브 쇼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기 유튜버 크리에이터와 본격 협업 방송을 진행한다. CJ온스타일은 유튜브를 통해 월 100건 이상의 CJ온스타일의 라이브커머스 생방송을 실시간 동시 송출할 계획이다.

CJ온스타일은 크리에이터 ‘세탁설(21일 P&G 다우니 섬유세제)’, ‘그리구라(21일 바다프렌드 안마의자)’, ‘시니(23일 피자헛 기프트콘)’, ‘영자씨의 부엌(27일 쿠키 밥솔)’, ‘예씨(28일 자코모 소파)’ 등 상품 전문성을 갖춘 인기 유튜버 크리에이터들과 다양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위메프는 6일 구글과 유튜브 라이브쇼핑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소개되는 상품을 위메프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위메프는 올 4분기 중 20회에 걸쳐 라이브쇼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불도 물도 아니었다... 공통과목 어렵고 선택과목 쉬워

올해 수능 들여다보니

문·이과 통합 2년차로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는 최상위권 기준으로 다소 쉬워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졸업생 응시자 비율이 높은 점, 고교 3년을 모두 코로나19 시기에 보낸 현 고3 학생들 내 학력 격차가 우려된다는 점 등이 체감 난이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어 영역은 어렵게 평가됐던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고, 수학도 어려웠던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돼 주요 과목 선택과목 간 유풍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어, 작년보다 쉽고 9월 모의평가와 비슷”= 올해 수능 국어영역 난이도는

국어,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해 중상위권 변별력 예년과 비슷 어렵게 출제된 수학적 판가름 영어, 작년 수능보다 쉽게 나와 선택과목별 유풍리 불가피할 듯

‘불수능’이었던 작년 수능보다 쉽고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어영역 문제를 분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 교사단의 김용진 동대부속여고 교사는 “9월 모의평가와 난이도가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2022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다”고 말했다.

작년보다는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최상

위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변별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창목 경신고 교사는 “최상위권에선 예년 보다 난도가 다소 하락해 다른 영역의 비중이 다소 커질 수 있다”며 “중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시업계도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쉬웠으며 공통된 분석을 내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매우 어렵게 출제됐던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며 “다만, 변별력 없는 물수능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수학 전년과 유사... 쉽지 않고 변별력 갖춰”= 수능 2교시 수학 영역의 경우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 수준과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교협 대입상담 교사단 소속 조만기 남양주다산고 교사는 2교시 수학

출제 경향 분석 브리핑에서 “올해 수학 영역 출제 난이도는 9월 모의평가와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유사했지만 일부 수험생 입장에서 쉽다고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수능에 비해 공통과목은 여전히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게끔 어렵게 출제됐지만, 선택과목은 조금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출제됐다”고 밝혔다.

김창목 경신고 교사는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지 않고 난이도가 지난해 보다 높아지지 않았지만 쉽다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평가도구로서의 변별력은 갖춘 어려운 시험”이라고 평했다.

입시업계에서도 수학영역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학은 전년 수준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

다”며 “1등급 커트라인도 전년 수준 정도를 유지할 정도로 변별력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까지 추세로는 국어보다는 수학의 변별력 확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이번 시험 역시 선택과목별 유풍리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3교시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쉽고,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교협 상담교사단은 “어휘도 특별히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9월 모의평가보다 문장 길이가 길어지면서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공부해왔던 중위권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며 휴대폰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 마련된 교사 앞에서 한 수험생 가족이 수험생을 격려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마포구 강북중로학원에 마련된 수능 문제분석 상황실에서 교사들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 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

법원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조현아(48·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 씨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이 4년 7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지정했다.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도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 등 민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으며 자녀를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박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 씨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18일 최종적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버려진 쓰레기 절반이 풍초” 한강공원에 흡연부스 설치

연말까지 11곳 37개 설치 금연 분위기부터 먼저 조성 내년엔 금연구역 지정 검토

신수린(가명·29) 씨는 평소 자전거를 타거나 반려견 산책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을 자주 방문한다. 하지만 간회장길 주변이나 다소 구석진 길에 가면 어김없이 담배 냄새를 맡게 된다. 신 씨는 집 앞 공원처럼 한강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부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서울한강시민공원 전역이 내년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계도차원에서 11곳의 한강공원에 흡연부스를 이달 말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내 한강시민공원 11곳에 총 37개의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각 공원 대상지에 흡연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흡연부스가 설치될 공원은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등 11곳이다. 각 공원의 면적

이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한 곳당 평균 3~5개 정도의 흡연부스가 들어서게 된다.

실제로 한강공원 내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담배꽂초 투기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문제대왔다.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4곳의 해안가에서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한 결과, 전체 쓰레기의 54%가 담배꽂초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설치를 시작해 올해 내로는 모든 한강 공원에서 운영이 시작된다”라며 “공원마다 최소 2~3개,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는 5개 정도 설치를 해 총 37개의 부스가 설치된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중 한강공원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는 한강공원의 금연 구역 지정에 추진하다 침수 여건 등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한강공원 전역이 일괄적으로 금연구역이 될지, 흡연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지 등 세부적인 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당장은 흡연부스를 설치해 금연 분위기 조성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chaebi@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해원 벌금형 확정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손해원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17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비공개 자료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부동산 14억 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범행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가 기밀은 맞지만, 자료를 받기 전부터 구도심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원심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손 전 의원에 대한 원심 선고 형량인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인경 기자 ekpark@

인터뷰

영화 '올빼미' 배우 류준열

데뷔 8년차 배우 류준열은 이미 주연 영화만 12편이다. '택시운전사'의 송강호, '더 킹'의 정우성·조인성 등 굵직한 선배들과 호흡을 맞췄고,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독전', '돈', '봉오동 전투' 등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배우로서의 안정감을 보여줬다면 흥행에 실패한 '뽕반', '외계인 1부'로는 다소 쓴맛도 봤다.

선배 배우 유해진과 호흡을 맞춘 신작 '올빼미'로 다시 관객에게 손길을 내민 그

밤에만 보이는 주맹증 침술사 역할 실제 환자 만나 인터뷰하기도
인조역 유해진 칭찬에 눈물 왈카
'이제 시작이다' 스스로 다독여
대중 관심에 지난 행동 반성도

를 지난 15일 서울 종로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극 중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볼 수 있는 주맹증 침술사 경수 역할을 맡은 그는 "먼 친척 중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다"면서 "어릴 때 그분의 눈을 보고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초점을 명확히 두지 않으니까 (예상외로) 눈에 깨끗함과 맑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연기에 반영하려 했던 느낌을 전했다.

또 "주맹증 환자를 실제로 인터뷰했다"

“부침 겪으며 천천히 철들다보면 언젠가는 ‘굶은 기동’ 되겠죠”



사진제공 NEW

면서 “음식점에서 반찬을 너무 잘 짚어서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편견이 완전히 깨지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우연한 계기로 궁 내에 들어간 경수는 삼전도의 굴욕 이후 권력에 극심하게 집착하게 된 인조(유해진)와 그의 아들 소현세자(김성철) 사이에 벌어진 중요 사건의 '목격자'가 된다. 밤에는 볼 수 있다는 설정 덕분이지만, 거기에는 '본다'는 행위에 대한 중의적인 의미까지 담겼다고 했다.

“엔딩에서 경수가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영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해요. 비록 어떤 결과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평범한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고) 내 입으로 무언가를 내뱉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여준다면 관객이 공감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지난 10일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의 '올빼미'를 처음 공개하던 날, 그는 곁에 자리한



영화 '올빼미' 속 한 장면. 사진제공 NEW

선배 유해진에게서 “굶은 기동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칭찬을 듣다가 울컥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인터뷰 내내 자신을 두고 “게으른 배우”, “주

로 관객이 '어디서 본 애'처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캐릭터만 연기한 배우"라고 표현했지만, 속내에는 연기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담고 있는 듯했다.

“배우 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영화를 하겠다'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연극영화과를 나왔으니까, 연기를 배운 거죠.”

거기에는 '순리대로 살라'던 아버지의 영향도 있다고 했다.

“다른 집이 빛지면서 사업을 확장할 때, 우리 집은 늘 적당히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껴서 살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어요. 적당히 벌어서 먹고살 정도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계속 상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문득 내가 왜 여기 있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는 유해진의 칭찬을 두고 “그동안은 좀 휘청휘청하고 알팍했다면, 작품을 해 나가며 부침을 겪고 조금씩 굵어지고 있다는 말씀일 것”이라면서 “이제 시작이다, 많이 굵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대중의 꾸준한 관심을 받는 삶에 조금은 익숙해진 듯, 생각의 변화도 전했다. “예전에는 제가 한 행동을 두고 '그게 나지 뭐'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 그 행동은 좀 어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걸 알아서 다행이라고요.”

역할의 경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배우로서 '철드는 일'이 두렵지 않냐는 연이은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렇다고 드는 철을 억지로 안 들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다”고 답하면서 “너무 고리타분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천천히 완급조절을 하면서 철들고 싶다”고 했다.

박꽃 기자 pgot@

새로 나온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3: 되찾은 시간 1·2

마르셀 프루스트 지음/김희영 옮김 /민음사/1만5000원·1만6000원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대표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출간됐다.

작가가 19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한 14년간 써 내려간 대하소설로 민음사는 특유의 긴 문장과 방대한 원고량을 고려해 13권으로 나눠 편집했다. 12, 13권은 마지막 7권에 해당하는 '되찾은 시간'을 다룬다.



있는 그대로 카타르

이세형 지음/초록비책공방/1만6000원

2022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경기도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로 1인당 국민 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 중동-아랍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할 만큼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나라, 친미와 반미가 공존하는 복잡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신간 '있는 그대로 카타르'는 국내 독자 대부분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나라 카타르의 역사와 현재를 전한다. 관련 사진을 촘촘하게 삽입해 이해를 돕는다.



디지털 폭식 사회

이광석 지음/인물과사상사/1만7000원

디지털 기술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기술주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책이 나왔다. 신간 '디지털 폭식 사회'의 저자 이광석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형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욱 거대해진 현실을 짚으면서 "시장을 넘어서 사회와 정치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좋아요, 순위, 추천, 별점, 평점 등이 평가 기준이 된 사회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폭력적인 갑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지적한다.

이병철 시인의 배달 에세이
『시간강사입니다 배민합니다』

시와 문학평론을 쓰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병철 시인

시간강사의 유쾌하고도 쓸쓸한 배달 일지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지원한 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국내 연수' 연구원에 선정됐을 때만 해도 내 앞날이 장밋빛으로 보였다.
그러나 박사 후 국내 연수가 종료되면서 월 고정 수입의 60퍼센트가 없어졌다.
인문학 연구자들은 대학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야말로 '잉여 인간'이 된다.

지금의 나를 지키려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렇게 구직 사이트를 한참 뒤져보다가
문득 요즘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가 '핫'하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그래, 이거야!

도서출판 걷는사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길 51
서교자이빌 304호

Tel 02 323 2602
Fax 02 323 2603

e-mail walker2017@naver.com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연말정산 조금 더 받을 수 없나?
 “노후자금”은 언제 다 받는지?
 근데 수수료는 꼭 내야 되나?

「이 많은 질문에 단 하나의 답
 ☆ IBK기업은행 IRP! ☆



연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무료!
세액공제와 수수료 걱정을 한 방에
IBK기업은행 IRP

[i-ONE뱅크] IRP 가입하기



수수료 무료
 i-ONE Bank 앱에서 가입 시
 퇴직연금 수수료 무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7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로
 최대 115만 5천원까지 절세 가능

노후자금 마련
 개인 맞춤 포트폴리오 설정으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 마련 가능

디폴트 옵션 도입
 DC/IRP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을 시
 사전 지정 방법으로 퇴직연금 운용

비대면(i-ONE Bank, 인터넷뱅킹)을 통한 IRP 가입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에 한함(단, 펀드 보수 별도 발생가능)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4228호(2022.08.19) [유효기간 : 2023.08.18]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男 보기엔 女전히 ‘외계인’... 우리 우아하게 이겨볼까요?”

명사와 함께하는 복수복

윤여순 前 LG아트센터 대표·코칭 전문가

국내 1세대 여성 임원인 윤여순 전 LG아트센터 대표는 상징적 존재가 아닌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분투했다. 그는 저서 ‘우아하게 이기는 여자’를 통해 여성 팀장이 드물던 1990년대에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했던 선례를 전하며 후배들의 용기를 북돋웠다. 더불어 다양한 강연과 코칭을 통해 성별을 넘어 많은 직장인에게 길고 짙은 호흡의 비결을 전하고 있다.

LG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이자 CEO. 어떤 조직에서든 리더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더불어 여태껏 없던 ‘최초’의 존재에게 보내는 타인의 시선과 잦아드는 가법치 않다. 윤여순 전 대표는 “여자에게 지시받고 일해야 해?”, “여성 임원은 능력과 야심을 모두 갖추면서 상냥해야 해” 등의 표현을 받아내면서도 최초의 여성 임원이라는 위치에 누가 되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렇게 LG인화원(연수원) 부장으로 시작한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15년간 임원 생활을 이어갔고,

LG아트센터 대표를 지냈다. 퇴임 후에는 기업 교육 역량을 살려 리더십 코칭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 늦깎이, 임신부, 대학원생

“무엇이 지금의 나로 이끌었는지 묻는다면, 아마 30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거창한 목표는 없었다. 남편의 학업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함께 몸을 실었을 뿐이다. 그저 미국에서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유학생의 아내’였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클래스, 영어로 하는 성경 공부, 살림꾼 미국 아주머니가 여는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미국의 주립대학에는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의 배우자에게 무료로 9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밀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공부 시작했다.

“수업을 듣기 시작할 즈음 임신을 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리포트도 써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튼튼이 아기 침대, 유모차 등 육아용품도 구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종강 후 5일 만에 딸이 태어났죠. 아이 기르는 일에만 전념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학업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뭔가를 고를 정도로 여유롭진 못했어요. 절박했거든요. 힘든 상황에

서 영어교육학 석사, 교육공학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었던 건 담당 교수님의 무한한 지지 덕도 컸어요.”

◇ ‘여자 외계인’의 기업 적응기

학업과 육아 사이에서 절실히 고민하기를 수십 번, 마침내 그는 박사 학위까지 손에 쥐고 한국에 돌아왔다. 당시 한국 일부 기업에서는 ‘교육 분야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풍조에 따라 미국에서 공부한 젊은 박사들을 과장급으로 채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변화와 도약을 위한 시도 속에서 그는 인연이 닿아 LG인화원 부장으로 입사하게 됐다.

“밑에서부터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 올라온 부장들의 눈에는 제가 달갑지 않은 ‘외계인’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여자 외계인’이요. 그때는 부장급 여성이 거의 없었어요. 어려움을 나눌 동료도 없이 참 외로웠죠. 여기저기 도움을 구했다가 ‘여성의 한계’라고 여길까봐 고민이 생겨도 혼자 끄집은 적이 많아요. 기업에 적응하기에도 벅잡죠. 슬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압박도 느껴졌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적인 일이 뭘까 고민하다, 교육공학 전공을 살려 온라인 교육 시스템 ‘사이버 아카데미’를 구축했어요. 지금은 당연한 온라인 교육이지만 그때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윤 대표는 임원의 자리에 올랐다. 당시는 ‘21세기라면 당연히 여성 임원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곱지 않은 태도로 그를 대하거나,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는 식의 눈길을 주기도 했다.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이라도 무례하고 지나친 일에 더욱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제가 내딛는 걸음이 여성들의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장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 결코 감정의 흐름대로 행동할 수 없었죠. 우리 사회는 감정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이잖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더 유리한 결과를 이뤄낼 지원군을 얻기 위한 단계이기도 해요. 이런 태도로 매사에 임하니 결과는 항상 좋은 쪽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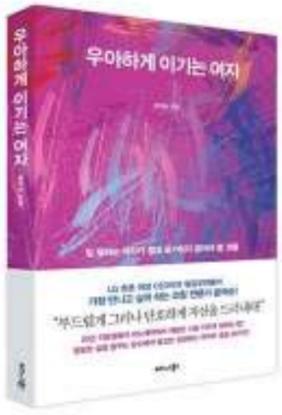
◇ 더딘 세상, 변화를 일으킬 우리

기업 내 ‘외계인’이었던 윤 전 대표는 남성들의 사고방식과 성향, 행동하는 패턴 등을 깊게 들여다봤다. 옳고 그름을 떠나 다른 점이 많았다. 특별히 여성을 적대적으로 여기려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 관습으로 굳어진 대로 행동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들도 있었다. LG를 떠난 후 그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기업 내 불평등을 해소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임원 교육팀장으로만 8년을 일했기 때문에 임원, CEO들의 고민을 면면이 알고 있어요. 그들의 중압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죠. 특히 워킹맘은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니 어려움이 커요. 승진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로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 자신을 믿고 인내하면서 조직을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해요. 기업에서도 남성 위주 사회에 여성을 받아준다는 자세가 아닌, 여성이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천장은 깨졌지만 양적·질적 변화는 여전히 해묵은 숙제다. 그는 각자 다른 시간을 지나는 소수자들이 뭉쳐 목소리를 내고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완벽히 해소됐다고는 말할 수 없죠. 때문에 여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더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요구하려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 대화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제 강연을 남성들이 들으며 조직의 여성 구성원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구할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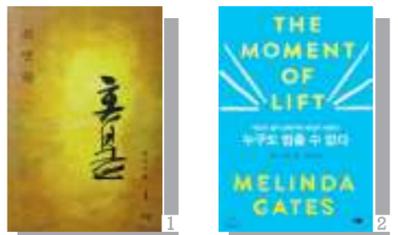
글/ 문혜진 기자 hjmoon@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아하게 이기는 여자

여성 리더가 드물었던 90년대에 LG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HR 부문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한 윤여순 전 LG아트센터 대표는 거창한 직장 생활 성공법을 가르쳐주다가 보다 같은 길을 걸어본 선배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해본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풀어냈다. 또한 20년 넘게 다양한 유형의 상사, 부하, 선배들과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일하는 여자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지혜와 내공들을 들려준다.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성장하며 일하고 싶은 당신이려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해안과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윤여순이 추천하는 ‘디딤돌 BOOK’



1 혼불 최명희 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가 배경이며, 최명희 작가만의 보물 같은 언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모든 어휘를 직접 조사하고, 문맥과 잘 어울리는 형용사를 쓰고자 되고를 거듭했다고 하더라고요. 박경리의 ‘토지’에 견줄 만큼 훌륭한 대하소설이라고 보는데, 많이 읽히지 않아서 아쉬워요. 강인한 우리 민족의 삶 속에 펼쳐지는 수많은 이야기와 풍속사, 특히 시대에 간혀 살았던 다양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어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누구도 멈출 수 없다 멜린다게이츠 저

“후배에게 추천받아 읽게 됐어요. 저자 멜린다 게이츠는 빌 게이츠의 전 아내이자, 세계 최대 자선단체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의 공동 의장이에요. 그와 재단은 세계의 빈곤, 질병, 불평등의 원인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것이 인간 모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책에는 멜린다 게이츠가 재단을 설립한 후 세상의 가장자리, 소외된 자들에게 20년간 들인 사랑이 담겨 있어요. 멜린다처럼 행동하지는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연대의 마음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디 앰비션 셸리아상보 저

“맛닥뜨린 벽 앞에서 좌절할 때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 셸리아상보는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이자 실리콘밸리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CEO인데요. 여성, 흑인, 워킹맘, 어린 나이 등을 딛고 글로벌 IT 기업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 브랜드를 구축하고 팀과 조직을 꾸리는 데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계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셸리아상보에게는 더 큰 성장을 이룩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조건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4 내게는 수많은 실패작들이 있다 노라에프론 저

“노라 에프론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해리가 셸리를 만났을 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등의 영화를 만들었죠. 이 책은 그가 써낸 생애 마지막 에세이예요. 당시 일하는 여성으로서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던 경험, 친구의 죽음, 노년에 느낀 환희와 불안 등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반추하면서 얻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실수나 실패조차 더없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LG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이자 CEO
퇴임 후 리더십 코칭 전문가 활약
“내 한걸음 女 첫 발자국이라 생각
무례한 일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죠”
직장 여성 위한 지혜 책에 답아

아직 나는 모르는
너만의 무한한 가능성을
맘껏 펼쳐보세요!
2022. 10. 19. 윤여순

“新기술·ESG 경영... 글로벌 건설시장 선도 발판”



‘2022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이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수상자와 시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앞줄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전병훈 한화건설부문 풍력사업팀장, 최철욱 한양 홍보 상무, 문왕현 금호건설 주택개발 담당 상무, 박완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현수 부영주택 전무, 이상규 GS건설 홍보담당 상무, 이진형 SK에코플랜트 상생협력팀장, 김경원 포스코건설 그룹장, 김진섭 현대건설 민간영업실 책임, 임희석 DL이앤씨 상무, 서희중 대우건설 상무, 최상진 롯데건설 현장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대변인,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김성진 해외건설협회 기획운영본부장, 이승재 대한주택건설협회 기획상무이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친환경·안전 등 12개 부문 시상 불확실성 속 건설업계 노고 치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정부 정책 지원 필요”

올해로 6회째를 맞은 ‘2022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투데이가 주최한 스마트 건설대상은 건설업황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국가 경제와 소비자들을 위한 건축물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건설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수상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올해 건설업계는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시장의 경착륙 우려, 불안한 국제정세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 건설사들은 신기술 개발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와 상품 개발, 안전 우선 현장 관리 등으로 또 한 번의 파고를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 높은 경제 파고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건설사들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건설시장을 선도해줄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대변인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기술혁신과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만 생산성과 안전성이 갖춰진 현장,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취업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건설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심사평에서 “이번 스마트 건설대상 출품 작품을 통해 건설사

들이 단순히 주택과 플랜트 등 단순 건설 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최신 경영 흐름을 쫓아 사업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우리 건설 산업이 스마트 안전, 스마트 공간, 건설 자동화 등 대대적으로 변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은 안전을 토대로 한 친환경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GS건설에 돌아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혁신 일자리 부문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고, (주)부영주택과 SK에코플랜트는 각각 산업안전부문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동반성장우수부문 대상

(동반성장위원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부문별 수상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브랜드부문) △주한화 건설부문 ‘ESG 경영실적’(ESG부문) △포스코건설 ‘더샵’(글로벌친환경브랜드부문) △대우건설 ‘해외건설 역량’(해외건설 부문)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우수상에는 △롯데건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아파트부문)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설계디자인 부문) △금호건설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고객만족부문) △한양 ‘항남역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주거문화부문)가 이투데이 대표이사상을 수상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종합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GS건설



혁신일자리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SH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매년 안전보건 추진과제 이행... 중대재해 제로화

GS건설이 그린 뉴딜 시대의 건설업계 선도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이투데이 주최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종합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GS건설은 녹색경영을 앞세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GS건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 “건설업을 둘러싼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경영이 돋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안전’을 핵심가치로 삼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안전보건 추진과제를 이행하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GS건설은 ‘ESG 위원회’를 신설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ESG 위원회는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의 컨트를 타워 역할을 맡아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8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상장기업 ESG 평가등급에서 통합등급 A(우수)를 획득하며 친환경 건설사로 인증 받았다.

이와 함께 임직원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시행 등 상생 협력 부분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사회 부분 등급에서 A+를 받았다.

GS건설의 미래도 친환경에 맞춰져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처리 사업 외에도 배터리 재활용 사업, 모듈러 사업, 태양광 개발사업 등 광폭 행보 중이다.

2012년 세계적 수처리 업체인 스페인 이니마를 인



수해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GS이니마는 6월 오만 수전력조달청에서 발주한 바르카 5단계 민자 해수담수화프로젝트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 약정을 완료했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GS건설은 자회사 에네르마를 통해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착공했다.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안전보건 추진과제를 수립·이행하고 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뿐이다.

또한 2006년 업계 최초로 안전혁신학교를 설립해 각종 재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실습 및 체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 입주민 자립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혁신일자리 부문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은 SH공사는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경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사무지원, 환경관리 분야에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처음 실행한 희망돌보미 사업은 집을 단순히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에게 단지 관리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하게 한다.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지 및 주변 지역 홀몸 노인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임대료,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자 대상 희망돌보미 근무연계를 독려하고 있다.

SH공사는 희망 돌보미 사업 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관리비 지원과 명절 소외계층 지원 등이다.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돋보인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도배, 장판 등의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감까지 모색해 줌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돌봄 희망돌보미를 채용해 서울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SH공사가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해 취약계층돌봄 분야 일자리를 제공해 채용된 입주민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등



로 돌봄이 필요한 임대단지 및 지역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돌봄 희망돌보미로 채용된 입주민은 노인 가구 돌봄서비스 제공, 고독사예방 등 지역 주거안정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및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SH공사는 창업클러스터와 산업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소득 증대와 경기 활성화, 실업 축소 등의 기반을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적 포용 국기를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컴팩트시티, 공간복지, 창업밸리 등 3대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및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산업안전부문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주)부영주택



안전 최우선·교육 강화... 경영진 현장 찾아 점검

(주)부영주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에 관한 투자와 교육에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주)부영주택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주)부영주택은 '2022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달 CEO급의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는 매달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수칙 이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으로 정하고, '중대산업재해 0(ZERO)', '3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 육성 및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장 안전을 최우선시해 작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업무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CEO 안전경영강화 △부서별 연간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분기별 이행 보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확장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컨설팅 △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력업체 KOSHA-MS 구축 및 컨설팅 등을 시행 중이다.

4월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직원 간담회도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업무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중대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수립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방법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9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새로운 규격인 'KOSHA-MS'로 인증을 전환했다. KOSHA-MS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시스템이다.

최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 완수를 위해 임직원 모두 중대산업재해를 포함,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사랑으로'라는 경영 철학에 걸맞게 사회공헌 활동으로 현재까지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사회에 기부하는 등 모범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동반성장우수부문 대상(동반성장위원장상) SK에코플랜트



협력사에 기술개발·금융 지원... 동반성장 앞장

SK에코플랜트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성장해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며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협력업체에 '비즈니스파트너(Biz Partner)'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평생 파트너로 인식하고 동반 성장에 힘쓰고 있다.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동반성장우수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다.



SK에코플랜트는 2011년부터 우수 비즈니스파트너 협의체인 '에코파트너스(ECO Partners)'를 발족해 운영하고, 정기 소식지인 '에코 브릿지'를 공유하며 비즈니스파트너와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현재 사업형태 및 업종별 9개 분과로 구성돼 총 99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금융 지원, 교육 훈련 등 동반성장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다.

6월에는 경기 화성시 한맥중공업 공장에서 조달 분야 우수 에코파트너스와 동반성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SK에코플랜트와 조달 비즈니스파트너 간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달 4일에는 스타트업 기업 6곳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SK에코플랜트가 7월 구축한 '밸류업 플랫폼'을 활용한 후속 활동의 일환이다. 플랫폼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투자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게 파트

너십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마케팅 등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해당 투자유치 설명회는 총 20곳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번 행사에는 6곳이 참여했다. SK에코플랜트가 최근 3년간 진행한 기술공모전 수상 기업 10곳과 밸류업 플랫폼 협약기관이 발굴한 스타트업 10곳이다. 각 스타트업은 9월 열린 사전 투자 미팅에 참여했고, 4일 행사에는 그중 6곳이 자리했다. SK에코플랜트는 향후 추가적인 투자 미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SK에코플랜트는 비즈니스파트너에 금융과 기술 개발 지원, 대금 지급 조건 개선, 교육훈련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즈니스파트너를 위해 금융 지원 확대, 방역용품 지원 등을 실천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SK에코플랜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혁신기술 사업화와 투자 유치, 공동 R&D 등 다각적인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브랜드부문 최우수상(국토연구원장상) 현대건설



주거공간 넘어 삶의 방식 창조하는 '힐스테이트'



'라이프스타일 리더(Life-Style Leader)'. 현대건설 브랜드 힐스테이트의 브랜드 철학이다.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만의 차별화 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종업계 최초로 주거공간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Life-Style Platform)'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주택전문가들이 다양해진 고객들의 삶의 면면을 담아 고객 요구에 맞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은 △세련된 삶 △다채로운 삶 △편안한 삶이라는 3가지 고객 제공 가치로 정의한 것으로, 이를 상품으로 구체화해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현대 힐스테이트는 분양하는 모든 신규 단지에 이러한 브랜드 철학이 담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적용해 구현해 나가고 있다.

힐스테이트는 지난해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2021 아파트 브랜드 파워 설문조사'에서 아파트 브랜드 파워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조사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도 43개월 연속 1위를 달성하며 계속해서 국내 아파트 대표 브랜드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힐스테이트는 1위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 힐스테이트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 충족 및 자극을 위해 상품 차별화를 위한 'H시리즈'를 매년 선보인다.

2018년 현대 힐스테이트는 시장 및 상품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 개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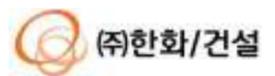


품인 H시리즈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선택형 및 옵션형 제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한 신평면인 H클린현관(세정, 살균, 세탁물 수거 현관), H바스(분리형 건식 욕실), H그라운드(접지층 특화형 주택), H세컨리빙(소셜 다이닝 주방) 등 총 12가지 신상품을 이때 개발했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보건, 위생, 건강, 비대면(언택트) 라이프가 일상이 되면서 재택근무의 확산, 실내 건강과 생활품 살균 등 신상품 개발에 주력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H드레스 현관과 숙면을 위한 침실 특화 H슬리포노믹스 등이 있다.

지난해 H시리즈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피로감과 우울함이 쌓인 이들에게 위로와 여유, 기분 전환의 행복을 주는 공간 만들기를 목적으로 계획했다. 해당 결과물은 신규 수주 및 분양 프로젝트별 적합성 검토를 거쳐 확대 적용해나가고 있으며, 소비자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과 디자인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혁신도 꾀하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ESG부문 최우수상(국토연구원장상) (주)한화 건설부문



풍력 다각화·수처리 강화... ESG 경영 박차

(주)한화 건설부문은 친환경 사업을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수처리 분야 등 환경사업에서 국내 톱 티어(Top-tier)의 '그린인프라 디벨로퍼'를 목표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ESG와 같은 지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글로벌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특히,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주)한화 건설부문 역시 모든 기업 활동의 경영 원칙이 될 ESG에서 건설회사가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왔던 풍력발전 사업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풍력사업실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주)한화 건설부문은 2020년 76MW급 영양 풍력발전단지(3.45MW급 22기)와 25MW급 제주 수망 풍력발전단지(3.6MW급 7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다. 작년에는 90MW급 양양 수리 풍력발전단지(사진) 추진이 본격화 됐으며 영진, 영월 등에도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해상으로도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400MW급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다수의 신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해 풍황 조사에 착수했다. 해상풍력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사



업 분야로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주)한화 건설부문은 축적된 풍력사업 EPC(설계, 조달, 시공 일괄)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개발과 운영, 투자까지 주관하는 풍력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처리 분야에서도 대규모 환경융합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1월 총 사업비 규모 7214억 원에 달하는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대규모 환경사업 수행 역량을 증명했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자 최초의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으로, (주)한화 건설부문은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및 현대화에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20년 충남 대산산업단지에서 '대산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글로벌친환경브랜드부문(해외건설협회장상) 포스코건설



친환경·리사이클링 실현해 지구 지키는 '더샵'

'지구의 내일을 지키는 친환경 아파트'는 포스코건설이 지향하는 건설 철학이다. 포스코건설은 아파트 건설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접목해 지구환경 보전과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는 친환경 아파트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2월에는 지구의 내일을 지키는 친환경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11년 만에 더샵 TV CF를 신규 제작해 론칭하기도 했다. 'Green Tomorrow, With POSCO'를 비전 슬로건으로 채택해 지구환경을 지키고 친환경 미래 비전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경영방침에 따라, 이번 CF의 메인 슬로건도 'Green Tomorrow'의 아파트 버전인 'Green Life With THE SHARP'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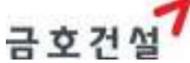
(핵심에서 앞서가는)를 콘셉트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강화된 편의, 안락한 휴식, 세련된 디자인을 더샵의 4대 지향기치로 삼았다.

포스코건설은 향후 아파트를 시공할 때 저탄소 시멘트 등 친환경 자재 사용을 늘리고, 생태계를 감안한 단지 조경, 실내 맞춤형 특화설계 등 환경친화적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철강재로 제작하는 '리사이클링하우스'와 태양광 에너지 활용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더샵은 △5년 연속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1위(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6년 연속 브랜드 고객 충성도 1위(한국소비자포럼/미국 브랜드키 공동주관) △3년 연속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위(한국표준협회 주관) △역대 12회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앞서 2020년에는 더샵을 출시한 지 11년 만에 브랜드를 새롭게 단장하기도 했다. 'Advance in Core

고객만족부문(우수상) 금호건설



가변형 벽체 설계로 맞춤형 평면구성 가능

금호건설이 짓는 주거형 오피스텔 '수원 금호 리젠시아 퍼스티지' <투시도>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 2지구 B1-1블록과 B1-2블록 일대에 들어선다. 규모는 지하 2층~지상 15층, 1단지(B1-1블록) 8개 동 전용면적 84㎡ 513실, 2단지(B1-2블록) 4개 동 전용면적 84㎡ 293실 등 총 806실이다.



단지는 가변형 벽체 설계로 가족 구성원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필요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 주거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변 입지여건도 좋다. 우선, 수인분당선 고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원역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 수원역은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이 개통될 계획이어서 삼성역까지는 20여 분 정도면 강남 등으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4베이 위주의 맞춤형 구조(일부 호실 제외)로 통풍과 환기가 좋고, 계절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와 안방에는 옷과 다양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드레스룸 등 수납 공간도 잘 갖췄다. 또 현관에 에어브러쉬, 에어사워기는 물론이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까지 무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사립지 바로 옆에 권선구청, 권선구보건소, 수원서부경찰서 등의 공공기관과 고색초, 고색중, 고색고교도 들어서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거실의 천장은 일반적인 천장고(2.3m)보다 10cm 더 높이는 우물천장으로 시공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창호는 22mm 복층 유리 이중창을 적용해 방음과 단열 효과를 높였다.

설계디자인부문(우수상) DL이앤씨



맞춤 주거플랫폼 'C2 하우스' 설계 군산 첫 적용

DL이앤씨는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272-3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80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를 군산시 최초로 적용한 단지다. 최초 적용 단지인 만큼 설계와 디자인에 공을 들였다. C2 하우스는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된다.

소농도에 따라 환기와 공기 청정 시스템이 가동되어 24시간 신선한 공기질을 유지한다.

세탁기를 별도 세탁실로 옮겨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가사 동선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주방에는 일반 창문보다 넓은 '와이드 주방 창호'를 적용했으며, 현관에는 대형 팬트리가 조성돼 있다.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신호등과 미스트 분사 시설물이 설치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중심에 잔디마당과 수경시설이 있는 '드포엠파크'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속 휴게정원 '미스티 포레',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또한 전 세대가 남방 위주로 배치됐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4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일부 동에 '커티월 룩'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했다. 세대 내부에는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

해외건설부문(해외건설협회장상) 대우건설



나이지리아·이라크서 잇단 낭보 '해외건설 강자'

대우건설이 해외건설 분야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투자 개발사업 강화를 위해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해외사업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앞으로 해외사업 유관팀과 해외건축팀 등 기술역량을 결합해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해외사업의 첫발은 나이지리아다. 노후화 플랜트 정비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말이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다. 지난 6월엔 나이지리아국영석유공사(NNPC) 자회사인 와리정유화학(WRPC)이 발주한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 공사'를 수주했다.

이라크 컨테이너터미널현장 전경. 사진제공 대우건설

이라크에서도 수주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9월 18일에는 발주처인 GCPI(이라크 항만청)으로부터 이라크 컨테이너터미널 현장에 관한 준공승인을 받았다. 컨테이너터미널 배후 부지 조성을 위한 총연장 4.6km의 사석 호안 축조공사로, 남부 바스라주에 위치한 알 포(Al Faw)항을 세계 12대 항만으로 개발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앞서 대우건설은 세계에서 가장 긴 15.5km 규모의 알 포 방파제를 준공했다. 대우건설은 이후 총 3조 원 규모의 신항만 개발 후속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가 수주했다. 향후 2·3단계 약 48조 원 규모 개발 사

이외에도 베트남에서는 첫 한국형 신도시 수출사업인 스타레이크 신도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노이의강남'을 건설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지난달 26일에는 스타레이크 시티 중심지인 'B3CCI' 투자개발사업 부지 착공식을 진행했다. 노이바이 국제공항 및 대사관 지역이 인접해 숙박시설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아파트부문(우수상) 롯데건설



1180가구 대단지 입지·인프라 '삼박자' 갖춰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는 경기 구리시 인창동 289-29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전용면적 34~101㎡, 총 1180가구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스케일, 인프라, 미래 가치 삼박자를 갖춘 구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단지는 소형평형부터 중대형 평형의 다채로운 평형 구성으로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리보건소, 구리우체국, 구리시인창도서관 등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 또한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더불어 교문초, 인창초, 인창중·고교 등 다수의 학교도 도보권 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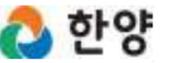
이 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돋보인다. 단지 출입로에 체육공원이 맞닿아 있어 녹지공간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고 인창중앙공원을 비롯해 구리역공원, 체육공원, 돌다리공원, 여울목공원 등 공원들이 다양해 언제든 여가 및 휴식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다양한 문화와 운동시설을 조성했다. 각 블록 별로 피트니스 및 GX, 실내골프, 사우실, 작은도서관 등의 시설이 계획돼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도보권 내에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위치하며 지하철 8호선 구리역(구리전통시장)이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이다.

주거환경도 준수하다.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구리전통시장, CGV 등의 쇼핑 및 문화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구

주거문화부문(우수상) 한양



'쉽'이 어우러진 청정자연 품은 힐링단지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균형' 한양의 아파트 브랜드 '수자인'의 철학이다. 자연 속에서 누리는 쉽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요즘 수자인 브랜드의 방향성은 더 부각된다. 입주민을 위해 진심을 쏟은 '향남역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조감도>가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주거문화 부문 우수상을 받은 이유다.



향남역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는 지난해 5월 분양 당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945가구 규모로 화성 지역에서 일 반분양됐다.청약 경쟁률은 최고 34.3대 1로 1순위 청약에서 대부분 가구가 마감했다.

프런싱장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단지는 청정자연과 연계된 힐링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인근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향남화합공원 등 공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향남2택지지구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단지 내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산책로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시설까지 마련된다.

첨단 스마트홈 솔루션도 갖춰져 단지 및 현관 방문 감지기, 조명과 가스차단 등을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다. 주차 관제, 무인 택배, 전기차 충전기능을 갖춘 단지 공용 시스템도 운영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고 4베이 설계(일부 가구 제외)로 실내 채광과 통풍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 남녀독서실, 피트니스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골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서해선 복선전철인 향남역(가칭)이 개통 예정으로 차량 이용 시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해

공부방이란 희망을 선물합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부방 리모델링 지원 사업 수혜가정 1호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머스크 “아근 싫으면 나가” 트위터 직원에 ‘최후통첩’

‘갈림길’ 제목 이메일서 “이틀 내 결정, 3개월치 급여 퇴직금” 비용절감·불만세력 척결 노려...비판글 올린 직원 자르기도 “테슬라는 뒷전” 의구심 속 “최근 후계자 물색 중” 증언 나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 직원들에게 아근하기 싫으면 회사를 떠나라고 통보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핵심 인력까지 해고하면서 경영전략에 물음표를 키우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16일(현지시간) 오전 직원들에게 보낸 ‘최후통첩’ 메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갈림길(A Fork in the Road)’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머스크는 트위터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고, 직원들에게 떠날지 남을지를 선택하라고 독촉했다. ‘트위터 2.0’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기 싫은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딱 이틀이다. 머스크는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매우 열정적이어야 한다”며 “고강도로 장시간 근무해야 하고 뛰어난 실적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를 떠나는 직원에게는 석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머스크가 직원 해고로 비용 절감과 불만세력 제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28일 440억 달러(약 59조 원)에 트위터를 인수한 후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앞세워 전체 직원 7500명 가운데 절반을 해고했고, 수천 명의 계약직 직원도 내보냈다.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매출 구조도 손봤다. 이용자들의 맹비난에도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의 월 구독료를 4.99달러에서 8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트위터 블루는 계정 이름 옆에 파란색 체크 표시를 달아주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정치인·연예인 등 유명 인사, 공공기관, 기업 등 인증받은 계정에만 제공했다. 그러나 구독료를 8달러로 올리면서 돈만 내면 누구나 파란색 체크 표시를 달 수 있도록 했다.

사내 여론 단속에도 나섰다.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 전날인 10월 26일 세면대를 들고 트위터 본사로 들어가고 있다. 머스크는 이후 본사에서 속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AP뉴스

15일 약 24명의 직원을 잘랐다. 트위터나 사내 메시징 서비스인 슬랙에 머스크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머스크의 대규모 감원이 트위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감원 압박과정에서 핵심 인프라 유지 인력까지 대거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다. 머스크는 일부 빈자리를 테슬라 등 본인 소유 회사에서 데려온 측근과 직원들로 채웠다.

당장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머스크는 15일 트위터 블루 서비스 재개를 2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위터 블루는 출시된 지 여섯 만인 지난 11일 운영을 중단했다. 유명인을 사칭한 계정이

급증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영향이다. 머스크의 경영전략이 못 미더운 광고주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수익 전망에도 경고음이 커졌다.

한편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 ‘올인’하자 테슬라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전날인 지난달 26일 세면대를 들고 나타났고, 이후 본사에서 속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머독 테슬라 이사는 이날 텔라웨이주 법원에서 열린 머스크의 거액 스톡옵션 관련 재판에서 “머스크가 최근 몇 달간 테슬라의 새 CEO 후보를 물색했다”고 말해 후계자 논쟁에 불을 지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이재성 LG전자 부사장
한국에너지대상 은탑훈장



이재성(맨 왼쪽)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더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재성 부사장은 지난 1987년 금성사공조기연구실에 입사했다. 이 부사장은 냉동공조 연구개발에 매진해 외산에 의존하던 공조제품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국내 가전산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부사장은 국내 냉동공조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데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연구해 히트 펌프 기술의 성장과 인버터 기술의 고도화를 이끌었다. 또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고용 창출 등에도 공헌했다.

이재성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기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고효율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냉동공조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burning@

한국투자증권, 경기도 안성에 ‘한국투자 꿈 도서관 2호’ 개관



왼쪽부터 인광석 신생보육원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성태 월드비전 ESG사회공헌본부장,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경기도 안성에 ‘한국투자 꿈 도서관 2호’를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투자 꿈 도서관’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독서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6월 경기도 양평에 문을 연 1호 도서관에 이어, 이번 2호 도서관은 경기도 안성 ‘신생보육원’에 마련됐다.

지난 16일 열린 도서관 개관식에는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과 임직원 봉사단, 김성태 월드비전 ESG사회공헌본부장, 안광석 신생보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은 새 도서관에 스마트 학습기기와 도서 전집, 문구류 등을 선물하고 보육원 어린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행사를 진행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아산상’ 시상식...박세업 의사 대상 수상

아프간·모로코서 의료봉사 펼쳐 보건환경 개선 기여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4회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치료하고, 모로코에서 2만7000여 명의 결핵 환자를 치료하며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한 외과의사 박세업(60) 씨가 대상인 아산상을 받았다. 아산상 상금은 3억 원이다.

의료봉사상은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된 소록도 주민들을 27년간 돌본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오동찬(54) 씨가 수상했다. 사회봉사상은 미혼모,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이주여

성 등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착한목자수녀회가 수상했다.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 상금은 각각 2억 원이다.

이외에도 아산재단은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수상자 15명에게 각각 상금 2000만 원을 시상하는 등 전체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수상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



정몽준(왼쪽부터)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제34회 아산상 수상자 박세업 외과의사, 사회봉사상 수상자 이희운 착한목자수녀회 수녀, 의료봉사상 수상자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아산사회복지재단

욱 따뜻해지고 있다”면서 “아산재단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SK가스, ‘행복숲정원’ 조성해 평택시에 기부

SK가스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ESG 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가스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908번지에 약 486㎡ 크기의 도시숲(사진)을 조성해 평택시에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숲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숲은 ‘다양한 원형 공간 속에서의 조화’라는 콘셉트로 평택시민과 평택을 찾는 방문객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번 행복숲정원 프로젝트는 SK가스의

ESG 마스터플랜 중 ‘생태보호 및 도시숲 조성’ 활동의 일환으로, SK가스 사업장 인근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숲을 조성해 깨끗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평택은 중국과 가깝게 위치한 데다 대규모 산업단지도 자리 잡고 있어 지리적·환경적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이다. 약 1400본의 수목이 식재된 행복숲정원은 평택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며,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행복숲정원의 공간 구성 및 식재 계획은 국내 유일의 조림 기업인 SK임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약 150평의 대지를 유선형의 공간으로 디자인해 ‘둘레정원’과 ‘통나무 쉼터’, ‘수국 정원’, ‘왕벚나무 숲’ 등으로 구성했다. 박기명 기자 pgy@

인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직 △건설인증센터장 강성훈 △기술사업화실장 김중배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선임 △Global혁신본부 계경태 △글로벌대체투자1본부 Ryan △투자개발1본부 김덕일 △투자개발2본부 김정수 △투자개발3본부 이건명 △프로젝트금융1본부 정종욱 △프로젝트금융2본부 손임표 △프로젝트금융3본부 김미영 △WM혁신본부 김동훈 △

Sage솔루션1본부 류희석 △Sage솔루션2본부 김화중 △디지털사업본부 김상화 △디지털PB본부 한섭 △고객자산배분본부 김민준 △고객자산운용본부 박건영 △상품건설링본부 손병호 △종합자산운용본부 박재현 △채권상품운용본부 이재현 △파생개발본부 Jonathan △재무본부 임용석(내정) △리스크관리본부 이재용(내정) △대체투자심사본부 정은석(내정) △법무지원본부 백상현 △프로세스혁신본부 노정숙 △경영지원본부 이정훈 △결제본부 김영운

부음

▲김경재(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씨 별세, 김윤미·유진·건우 씨 부친상, 권혁(한국남동발전 차장) 씨 장인상 = 16일,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30분, 02-923-4442

▲강순례 씨 별세, 이성원(전 전북일보 편집국 총괄부국장) 씨 모친상 = 16일,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8일 낮 12시, 장지 임실호국원, 063-250-2452

▲전병임 씨 별세, 김승기(전 국민은행 부장)·영순·인기(전자신문인터넷 온라인 편집국장) 씨 모친상, 김종민(전 국립환경과학원 과장) 씨 장모상 = 1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2-3410-6919

▲왕윤수 씨 별세, 왕종명(MBC 위성전 지국장)·종미(대구 전자공교 교사) 씨 부친상, 이성용(애플하우스 인테리어 대표) 씨 장인상, 윤희정(YA 미디어 대표) 씨 시부상 = 17일,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1일 오전, 1599-4411

현대차, 월드컵 기간 동안 카타르에 특별 전시관 운영



맨 오른쪽부터 박지성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 김연수 현대차 인도아중동대관역 부사장, 마르코 파조네 FIFA 박물관 장관.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2022 월드컵을 맞아 국제 축구연맹(FIFA)과 함께 카타르 도하에 특별 전시관을 연다.

현대차는 16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 있는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FIFA 팬 페스티벌’ 미디어 행사에서 2022 월드컵 특별 전시관 ‘FIFA 박물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현대차는 FIFA와 함께 ‘역사를 만든 굴’이라는 주제로 562㎡(약 170평) 규모의 FIFA 박물관을 건설했다.

FIFA 박물관에는 2022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 참가국 유니폼과 역대 월드컵 트로피 등 월드컵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축구 관련 소품 등이 전시됐다. FIFA 박물관은 FIFA가 2022 월드컵 개막 하루 전날인 이달 19일부터 결승전이 열리는 12월 18일까지 한 달간 알 비다 공원에서 운영된다.

FIFA 관계자는 “이번에 카타르에서 개관하는 FIFA 박물관은 2018 러시아 월드컵, 2019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 이어 현대차와 함께 세 번째로 건축한 FIFA 박물관”이라며 “축구의 역사와 문화를 개최국에 소개할 기회를 준 현대자동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세계 프리즘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이재용 회장의 다짐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사회공헌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한다. 공익 플랫폼의 부재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갈등을 겪고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다. 이를 타파하는 방법이 공익 플랫폼이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어디에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찾아보게 하자는 것이다. 삼성의 힘으로 만들었지만 국민의 힘으로 굴러가게 된다.

경영의 신으로 불리었던 잭 웰치(1935~2020) GE 전 회장이 세계 지식포럼에서 "일류 기업과 이류 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일류는 실수를 한 번만 하지만 이류는 두 번, 그 이상 한다"고 했다. 인상적인 답변이었다.

10월 27일 취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포브스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5위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알파벳(구글), 애플 순으로 모두 미국계 IT기업이다. 또 인터브랜드의 '글로벌 100대 브랜드' 중 삼성전자는 올해 5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17% 늘어난 877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가 35위에 올랐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다는 미국 발전 시대의 논리를 적어도 경제에 관한 한 삼성과 한국에 적용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지금 삼성 없는 한국 경제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삼성과 한국의 관계를 사회에 대입하여 보면 고개를 가웃하는 국민들도 많다. 일각의 반기업 정서로

이재용 시대와 삼성의 사회공헌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 뿌리가 의외로 깊다.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삼성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재용 회장이 이 간격을 좁힐 수 있으면 그의 취임 일성이 실현되는 셈이다.

순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삼성의 사회공헌 사업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되기를 바란다. 첫째는 자발성이다. 삼성의 사회공헌 역사는 길다. 1965년 10월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재산 180억 원을 셋으로 나눠 이 중 3분의 1을 기부해 삼성문화재단을 만들었다. 이듬해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졌으나 그는 구속은 면했다. 그리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2년 후인 1968년 다시 회장에 올랐다.

2008년 4월 이근희 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8000억 원을 헌납해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삼성만이 할 수 있는 통 큰 결단이었다. 그러나 시점이 문제였다. X파일 사건과 삼성 특검의 조사 직후였다. 어쨌든 이근희 회장은 구속을 면했고 대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사면 복권이 됐고 회장직에 복귀했다.

삼성 사회공헌사에 변곡점이라고 할

두 개의 사건에서 똑같이 공익법인 설립, 사회공헌 사업이 등장하고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거론됐다. 회장직 사임, 복귀의 과정도 반복된다. 이쯤 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지, 총수의 사법 처리와 관련된 해법인지 고개가 가웃겨진다. 이래서 자발성이 의심받게 된다.

자발성과 동전의 양면 같지만 두 번째 과제는 진정성이다. 삼성의 사회공헌은 다 각도에서 오랫동안 많은 자원과 두뇌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자원봉사 등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테마도 발굴해 우리 사회에 정착시켰다. 그런데 많은 CSR 사업이 삼성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 사회와의 접점은 좁아지고 사업과의 연결은 두터워졌다. 미르, K재단에 대한 수백억 원의 기부가 대표적이다.

사회와의 연계인 CSR 활동이 권력과 권력의 강요는 별개로 하더라도, 진정성이 결여된 사회공헌 사업이 단초였다. 이재용 회장은 신뢰받고 사랑받는 새로운 삼성을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

정성과 자발성이 보완된 사회공헌 사업이 필수적이다. 총수의 필요가 아니라 사회의 필요에 의해, 거래와 청탁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에 의해 사회공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재용 회장의 다짐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사회공헌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한다. 공익 플랫폼의 부재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갈등을 겪고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다. 이 공익을 타파하는 방법이 공익 플랫폼이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어디에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찾아보게 하자는 것이다. 삼성의 힘으로 만들었지만 국민의 힘으로 굴러가게 된다. 삼성의 진정성과 자발성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단기간에 완성된 모델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발전되면서 완성된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삼성 사회공헌은 잭 웰치 회장의 일류와 이류 개념에서 보면 실수를 여러 번 했다. 양은 몰라도 질로는 일류라 할 수 없다. 이재용 회장의 사랑받는 기업을 향한 다짐이 삼성에 좋은 것은 나라에 좋다는 명제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과학 놀이터



이난영 과학칼럼니스트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 굴로 뛰어들고 있었다. 어떻게 다시 빠져나올 것인지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중략) 멈춰야겠다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갑작스러워서,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 앨리스는 이미 아주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의 도입부 중 일부다. '너무 늦겠네'라고 혼자 말을 하며 걸음을 재촉하는 흰 토끼를 보고, 호기심이 불타오른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 무작정 굴 안으로 뛰어드는 장면이다. 최근 심리학 저널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8호에 음모론에 빠지는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를 진행한 영국 켄트대학교의 로비 서튼 심리학 교수와 그의 동료 카렌 더글라스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이 음모론(conspiracy theory)을 믿게 되는

기후변화 음모론을 생각하며

과정은 앨리스가 토끼 굴에 빠지는 것과 유사하다. 일례를 들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지구 사실 접시처럼 납작하다'와 같이 누군가 정설로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지만, 몇몇 사람은 이를 믿는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문 또는 이런저런 책에서 부합하는 내용만을 채택해 증거로 모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논리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사실을 도출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과의 교류는 늘고, 반면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의견 교환은 점점 줄어들어간다. 음모론을 믿는 이들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결속력이 증대된다. 이런 유대감 때문에 생각을 되돌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자신을 진리 추구자로 여기게 된다.

음모론은 정치, 사회 사건에 관한 게 대부분(?)이지만, 과학 관련 내용도 심심치

않게 많다. 앞서 말한 지구 평면설, 인류는 달에 간 적이 없다는 내용의 아폴로 11호 달 탐사 음모론, 지구 온난화 허구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백신 관련 음모설은 그 내용이 제법 알려진 것들이다. 이 중 가장 최악은 '지구 온난화 허구설'이다.

기후위기 자체를 '사기극'이라며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지구가 더워지는 건 맞지만 탄소 배출과 같은 인간 활동에 기인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도 있다. 즉, 지구 역사상 기후는 항상 변해왔고 현재의 지구 온난화는 약 1500년 주기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기후 현상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한 역사적 증거로 중세 온난기를 들었다. 중세 온난기엔 지난 세기보다 스무 배나 더 더웠고, 기온 상승 현상은 주기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될 것이니 호들갑 떨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생대 기후(Palaeoclimate)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세 온난기의 기온이 최절정에 도달했을 때도 현재의

기온보다 결코 높은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중세 온난기는 유럽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었고, 이어진 소빙하기(Little Ice Age)에도 지구 전 지역에서 동시에 기온 강하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한다. 이 외에도 지구 온난화를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는 연구 결과들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이것만은 음모론 맹신자들이 그들만의 세계에서 되돌아 나오도록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튼과 더글라스의 주장에 의하면 '관련이 없는 사실들을 교묘하게 엮어 사실인 양' 하는 음모론에 빠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적 능력과는 무관하다. 이런 일을 완전히 방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걸 뜻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과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기를 독려한다면 잘못된 생각에 매몰되는 걸 멈출 수는 있다고 한다. 그들을 조롱하고 자꾸 구석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브레네 브라운 명언 "용기란 비판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전심전력'(wholeheartedness)을 10년간 연구한 미국 교수. 이를 실천하는 데 방해나 도움이 되는 여러 감정인 부끄러움, 용기, 진심함, 약함을 밝혀냈다. 그녀는 전심전력을 처음 정의 내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명했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65~

☆ 고사성어 / 필부지용(匹夫之勇) 좁은 소견으로 험기만 믿고 함부로 날뛰는 행동을 비유한다. 출전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하편.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맹자에게 "과인은 용기를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며 작은 나라를 받들기보다는 합병해 나라를 키우고 싶고, 큰 나라와 싸워 이겨 제후의 맹주가 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맹자가 한 말에서 유래했다. "소용(小勇)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칼을 어루만지고 눈을 부라리며, 너 같은 자는 나의 적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필부의 용기[匹夫之勇]'로 기껏해야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청컨대 부디 좀 더 큰 용기를 가지십시오." 맹자는 용기를 좋아하는 선왕의 마음을 근거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시사상식 / 커피출레이션(Capitulation) '조건부 항복'이라는 뜻이다. 급락세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희망을 버리고 항복하듯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급락장에서 투자자 심리는 3단계다. 처음엔 그런 장이 아니라고 '부정(denial)'하다가, 진정되지 않으면 '공포(fear)'로 바뀐다. 마지막에는 '무조건 항복(Capitulation)'해 투매로 이어진다.

☆ 신조어 / 뇌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뇌의 회로가 끊어지는 것처럼 사고가 정지된다는 뜻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정용욱 / 부동산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17일 0시 30분 한국 땅을 밟은 빈 살만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에 실시간 중계 중이다. 그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어느 숙소에 묵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행동이 국민적 관심사다. 빈 살만의 별명은 'Mr. Everything(미스터 에브리싱)'.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빈 살만은 부와

빈 살만의 호주머니를 열어라

권력을 모두 갖춘 완성형 권력에 가깝다. 그의 추정 재산은 2조 달러로 이날 환율 1342원을 적용하면 약 2690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약 604조 원임을 고려하면 4년 치 국가 예산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절대 왕정국가인 사우디에서 빈 살만은 1985년생 젊은 왕세자다. 1935년생으로 고령인 아버지를 대신한 실질적 통치자로 평가받는 이유다.

빈 살만의 방한 목적은 한국과 모든 분야에 걸친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재계 총수와 차담회 형식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로 국내 기업과 크고 작은 협약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국내 건설업계는 빈 살만이 주도하는 사우디 '네움'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네움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서부 황해 인근에 5000억 달러를 투입해 신도시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기존 해외 진출 기업은 물론, 대형사 모두 수주 기회가 열려 있어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성과도 쏟아진다. 한전과 삼성물산 등 5개사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그린수소 개발을 위한 약 9조 원 규모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택 경기가 어려워 해외 수주를 통한 실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환율이나 유가를 고려하면 네움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건설업계가 사우디 진출 '대어'를 낚기 위해선 빈 살만 방한이라는 장밋빛 현실에 취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의 입김이 강한 곳으로, 그동안 알짜 사업은 유럽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며 "한국 기업은 사업 규모만 크고 수익성 낮은 사업만 수주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빈 살만의 방한을 반기는 동시에 경계해야 할 이유다. dragon@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편집국장 박성호 주소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유튜브 '양김권 TV' 운영

양제경 마일스톤 대표 권순환 부대표 김규현 엠애피 대표

“회계를 너무 깊지도 가볍지도 않게...힘 빼니 통했네요”

“적당히 고급지다.’ 이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너무 깊지도, 또 너무 가볍지도 않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회계법인 마일스톤 사옥에서 진행된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양제경 마일스톤 대표회계사는 이같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소개했다. 양 회계사는 권순환 부대표, 김규현 주식회사 엠애피 대표와 함께 '양김권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엠애피는 중소기업 딜 어드바이저리(Deal Advisory) 특화를 목적으로 회계법인 마일스톤에서 분사한 회사다. 회계사라는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재미까지 놓치지 않아 입소문을 탄 '양김권 TV'의 구독자는 이달 17일 기준 약 1만5000명으로, 구독자 수로 따지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보다 위다.

2010년 안진회계법인 동기로 만난 세 사람은 퇴사하면서 잠시 헤어졌다가 2016년 마일스톤으로 다시 만났다. 안진에서 나올 때부터 세 사람의 목표는 독립이었다. 나 오자마자 무작정 회사를 세울 순 없었기에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작당 모의'를 시작했다. 시장의 생리를 터득하고 세 사람만의 새로운 회사를 열기 위해서였다.

'사업의 시작부터 정점까지' 슬로건

김규현 회계사(이하 김)= 양 회계사와 권 회계사가 먼저 안진을 나가서 각각 다른 로컬 법인으로 갔다. 나도 1년 후에 양 회계사와 같은 법인으로 들어갔다. 당사가 2015~2016년인데 그때 기준으로 2~3년 후에 새로운 회사를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권 회계사 덕분에 시간이 단축돼 입사하고 6개월 만에 나와 마일스톤 문을 열게 됐다. 시간 단축은 항상 권 회계사 덕분이다.

권순환 회계사(이하 권)= 우리는 일로만 엮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도 깊이 엮여있다.

이처럼 출발부터 일반 로컬 회계법인과 다른 마일스톤은 사내 분위기도 남다르다. 통상 로컬 회계법인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독립채산제는 감사팀별 단순 집합체로,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회계사들이 각자 일감을 가져와서 처리하고 수입도 일부를 법인에 내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팀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마일스톤은 사실상 '원펌(One-Firm, 조직화된 법인)' 체제다.

양제경 회계사(이하 양)= (사명 후보에) OO세무회계사무소가 있었다. 이는 직접 업무 수입 범위를 한정 짓는 거다. 가령 '양제경 세무회계사무소'라면 여기에 맡길 일은 이름만 들어도 뻔하다. 단순 세금 신고 같은 거다.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 같아 다른 이름을 고민했고, '마일스톤'이란 이름을 불현듯 떠올랐다.

권= 우리 회사는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인다. 로컬 법인은 이름만 같이 쓰고 각자 따로 생활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 안에 내 사업부와 양 회계사의



양제경(가운데) 회계법인 마일스톤 대표, 권순환(오른쪽) 부대표, 김규현 주식회사 엠애피 대표가 서울 강남구 회계법인 마일스톤 사옥 앞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신태현 기자 holjjak@

안진회계법인 동기로 만난 3명 '독립' 목표로 퇴사 후 의기투합

독립채산제 아닌 '원펌' 체제 한 조직으로 움직이며 시너지

콘텐츠 홍보 위해 유튜브 시작 오늘부터 회계사·회계유치원...

구독자 수 4대 회계법인보다 위 "주식 투자자 위한 분석은 사양"

사업부, 김 회계사의 사업부가 따로 운영되는 것이다. 규모가 커도 구성은 쪼개져 있어 전체적인 의견 합치도 어렵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쪼개져서 움직일 일은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남들이 못 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시너지가 상당하다.

양= 원펌의 장점은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도 그것 중 하나다. 우리의 슬로건은 '사업의 시작부터 정점까지'다. 고객군도 1인 기업부터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 수백억 원대로 매각하려는 회사까지 다양하다. (같이 일한) 고객사가 '마일스톤은 특이한 것 같다'고 평가한 적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이다. 모든 범위의 고객군을 가진 게 우리의 강점이다. 빅펌(대형 회계법인)은 누가 봐도 아는, 기업의 정점에 있는 회사만 맡는다. 반면 일반 사무소는 사업의 시작에 있는 고객군만 다룬다. 우리는 이 모두를 아우른다.

재무제표, 비회계 종사자도 알기 쉽게

마일스톤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 '양김권 TV'다. △오늘부터 회계사 △회계유치원 △CEO훈련소 등 다채로운 코너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콘텐츠는 '오늘부터 회계사'다. 오늘부터 회계사는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회계 종사자도 알기 쉽게 풀이하는 콘텐츠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면서 빅맥의 원가도 추정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업로드된 '빅맥의 원가는 얼마일

까? 한국 맥도날드 재무제표 분석'에서 양김권 TV는 맥도날드의 손익계산서로 식품매출과 식품매출원가의 계정이 어떤 걸 뜻하는지 각각 설명한 후 식품매출 중 식품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빅맥의 원가를 가능했다.

양= 2020년 초 김 회계사가 호주로 여행을 갔다 오더니 콘텐츠를 홍보해야 된다고 하더라. 알고보니 김 회계사가 여행하며 들고간 책이 '콘텐츠로 창업하라'였다.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

김= (유튜브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곤 했는데 아쉬움이 있었다. 유튜브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추억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다.

권= 유튜브 시작하는 데 이전은 없었다.

"힘 빼자"...편하게 노는 기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 사람은 유튜브에 점차 진심이 됐다. 영상을 보는 이가 하나라도 새로운 지식을 얻어갈 수 있게 정보를 담으려고 애썼다. 그렇다 보니 유튜브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만 꼬박 이틀이 들어갈 때도 있었다.

양= 당시에는 영화 대본처럼 대사 하나 하나를 만들고 외워서 찍었다. 유익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25분 안에 회계, 세무 지식 거리를 드리려고 했다. 상대방이 대사를 쳐야 나도 대사를 하는 구조라서 NG가 난 적도 있었다. 내부에서도 '너무 읽는다, 재미가 이전보다 떨어진다'라는 평이 있었다. 모르는 내용은 아니니 머릿속에 있는 걸 편하게 말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 (완벽하게 대본을 짜고 숙지한 후에) 했을 때 내용은 더 좋을 수 있겠으나, 어느 순간 그 대본을 읽고 말하게 되더라. 그래서 '원래 알던 내용으로 얘기하자'고 했고, 지금은 촬영을 올 때마다 와서 (회계로) 노는 기분이다.

권= 힘을 빼자고 한 순간이 있었다.

양= '얘기 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멘트도 칠 수 있다. 회계 채널이다 보니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기업 분석과 인수합병(M&A), 세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분석할 기업을 선택하는 건 세 사람의

취향이 담겨있다.

양= 유튜브는 철저하게 B2C 시장이다. 어찌 보면 개인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인데, 누구나 들어본 회사를 하려고 한다. 또 그 안에서 얘기할 거리가 있는 회사들을 한다. 당근마켓과 맥도날드가 대표적이다.

김= 제 관심사는 M&A다. 모 회사가 매각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런 사례를 분석하기도 한다.

'친정' 안진서 오피스 투어 초대받아

세 회계사는 유튜브 콘텐츠 때문에 친정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오피스 투어 초대를 받았다. 지난 6월 업로드된 브이로그 덕분이다. 당시 양김권 TV는 '여의도 옛 직장 갔다 쫓겨난 썰 푼다'라는 영상으로 안진회계법인 건물에 들어갔다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해 다시 나가는 모습을 담았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은 "다음에 올 때 연락 달라"는 댓글을 달았고, 지난달 양김권 TV는 '안진회계법인 오피스 투어(퇴사했는데 초대받은 회계사가 있다?)' 영상을 게시했다.

권= (안진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간다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사돼서 좋았다. 들어가면서 옛 생각도 많이 났다.

김= (초대받을 당시) 뿌듯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직은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민망하기도 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지만, 양김권 TV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채널은 아니다. 올해 초 초보 주식 투자자를 위한 책을 내자는 출판사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다. 세 사람은 회계 기준이 변하면서 점차 회계가 어려워진다는 공통 문제의식이 있었다. 여기에 '재미를 더하자'고 생각했다.

권= 요즘 회계가 너무 어려워져 전문가도 해석하기 쉽지 않다. (하물며) 비전문가는 그게 더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시장 참여자들이 인사이트를 얻고자 할 때 보는 건 감사보고서인데, 그걸 끝까지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보고서가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다는 의식이 있었다.

양= 투자 목적의 시청자라면 저희 채널은 맞지 않는다. (우리의 분석은) 주식 투자자를 위한 분석이 아니다. 우리 채널은 투자 목적과 상관없이 '이런 게 있다더라'하고 보는 게 맞다.

김= 우리 채널이 투자자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구독자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거다. 하지만 우리가 피곤했을 거다. 우리는 구독자를 많이 모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다.

유튜브를 통해 '마일스톤'을 알게돼 찾아온 고객도 있다. 일부러 이들을 찾은 고객들은 '영상을 보니 신뢰가 간다'고 입을 모았다. 딱딱한 회계를 말랑한 언어로 설명하는 '양김권 TV'가 통한 것이다. 마지막으 양 회계사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면 결국 고객이 알아볼 것이라는 걸 믿었다"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그 역에 가고 싶다

온천행 전용선로 '동래역'

옛 동래역은 일제강점기 동해남부선 부설과 함께 1933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역사는 1934년에 신축되어 수차례 증개축이 이루어졌지만 벽돌과 나무 구조, 박공지붕 등의 보존상태가 뛰어나다. 부산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로 일제강점기에는 동해안 광물 자원이 수탈되던 현상이었지만 광복 이후에는 부산과 동해안을 이어 부산의 발전과 성장을 함께하는 현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준철도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동해선의 새로운 동래역이 세워지고 옛 동래역 자리에 도로가 건설되면서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역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 현재의 위치로 이전 복원되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동래의 명칭은 본래 거칠산국으로, 신라 경덕왕 때 동래군으로 고쳐 이에 따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진전에는 삼한시대 24개국 국명 중에 독로국이 있어 동래로 음전되어 정착되었다는 설도 있다. 동래지역은 조선시대 군사상 요충지로 조선 후기에는 동래도호부로 역할하였다.

삼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래읍성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가장 먼저 전투가 치러졌던 역사적 공



동래 온천천 물놀이 모습.

간이다. 결사항전에도 불구하고 성은 함락되었지만 동래부사 송상현의 순국은 향전의 표상이 되었고, 살아남은 이들 역시 다시 의병으로 들고일어났다. 그러한 향전의지는 300여 년이 지난 일제강점기에도 지속되었다. '부산역사문화대전'에 따르면 1919년 3월 동래장터에서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 명정학교와 범어사 지방학림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다.

동래온천은 신라시대부터 신령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던 온천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백학이 목욕을 하던 곳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1883년부터 일본인들이 욕심냈을 만큼 유명세가 대단했다. 약알카리성의 온천으로 병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인기가 매우 높았는데, 이 때문에 부산진에서 동래 온천장에 이르는 전용 선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1909년 부산수도공사에 사용된 경편레일과 기관차를 인수하여, 부산 내 일본 자본가들이 부산궤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건설한 동래선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에도 옛 동래역 터를 알리는 비석과, 온천장역에 설치되었던 할아버지 상의 흔적이 남아 있다. 자료=국기철도공단 '한국의 철도역'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SG
LANDERS

가장 완벽한 One Team

개인상 수상 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된 '팀'은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응원,
선수들의 열정과 투혼,
승리를 위한 간절함이 모여

세상에 없던 값진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야구 최초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정규시즌 &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
그리고 관중 수 1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할
한계 없는 플레이를 위해

SSG랜더스



2022 KBO리그 통합우승
쓱세일 IT'S LANDING TIME
11/18(금)~11/20(일) *경기시간에 따라

SSG.COM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라이브쇼핑 G마켓 스타벅스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L&B 이마트24
신세계푸드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건설 신세계사이먼 신세계센트럴시티